

코스피	2548.26	코스닥	906.36
	(-15.08)		(-11.59)
금리	3.847	환율	1335.40
	(+0.082)		(+4.90)

르노만의 혁신 디자인  
광주비엔날레서 공개  
04



## m-커버스토리

# 특혜 의혹 재점화... 압색 등 증권가 몸살

〈압수수색〉

### 끝나지 않은 '라임 악몽'

금감원 라임사태 추가 조사결과 특혜성 환매 등 추가 의혹 발견  
檢, 미래에셋·NH·유안타 압색  
일부업체, 피해자 환매 등 진화  
영업 위축, 신뢰 추락 등 불가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로 인해 증권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이 뒤늦게 피해자 환매에 나서는 등 사태 해결에 손쓰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영업 위축, 투자자 신뢰 추락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채권랩·신탁 돌려막기 운용, 운용업계의 임직원 사익 추구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던 금감원이 라임펀드 사태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증권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특혜성 환매 의혹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혹 대상자로 떠오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에셋증권에서 환매 권유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판매사인 증권사들이 수사 대

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라임 펀드가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월부터 9월 사이 유력 인사나 특정 기업에 자금을 돌려주는 특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들 증권사는 각각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농협중앙회, 고려야연 등에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있는 조기 환매 펀드는 총 4개인 만큼, 추가 판매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대상을 정해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재조사로 라임사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판매사로 이름을 올린 일부 증권사는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젠투와 라임펀드 고객 보호를 위해 사적 화해 방식의 보상을 결정했다. 사적 화해 대상 규모는 젠투펀드 4180억원과 라임펀드 1440억원이다.

사적 화해 절차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사적 화해를 통한 지급 비율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

〈3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허인 KB금융 부회장

## KB금융 차기 회장 8일 최종후보 결정 허인 부회장 '유력'

KB금융그룹을 이끌어 갈 차기 회장에 허인 KB금융 부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는 8일 결정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회장 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오는 8일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된 3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뒤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자 1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회추위는 지난달 29일 인터뷰를 통해 외부인사인 김병호 베트남 HD은행 회장과 내부인사인 양종희 KB금융 부회장, 허인 KB금융 부회장 등 3명을 차기회장 후보로 압축했다. 모두 1961년생이다.

김 회장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하나은행의 전신인 한국투자금융에 입사했다.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하나은행장을 맡은 그는 2018년 3월까지 하나금융 부회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베트남 HD은행 회장을 맡고 있다.

양 부회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LIG손해보험 대표이사를 맡은 그는 2020년 KB금융 부회장직에 가장 먼저 올랐다. 그룹내 재무통으로 꼽힌다.

허 부회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17년부터 4년간 KB국민은행장으로 지낸 그는 2021년 KB금융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허 부회장은 국민은행장으로 재직 당시 2년 연속 리딩뱅크 자리를 지키는 등 안정적인 이익증가를 이뤄내 그룹내 영업통으로 불린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허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그룹에서 은행은 가장 규모가 큰 핵심계열사인 만큼 은행장 경력은 회장의 필요조건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출신인 점도 힘을 실어준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허 부회장이 한 학번 아래다.

KB금융은 오는 8일 최종후보자를 선정 후 회추위와 이사회 추천절차를 거쳐 11월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일본, 달 착륙 로켓 발사 성공

7일 일본 남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무인 탐사선 '슬림'과 천문위성 '쿠리즈'를 탑재한 H2A 47호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NHK는 "H2A 로켓 47호가 오전 9시30분께 '슬림'을 궤도에 투입해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보도했다. 슬림이 달 착륙에 성공하면 일본은 세계 5번째로 달에 착륙한 국가가 된다. AP/뉴시스

## 온난화 주범 '냉매'... '친환경 전환' 정책적 유인 필요

### '콜드체인' 급성장에 냉매수요 ↑ 오존층 파괴로 국제사회 규제나서 韓, 내년부터 HFC 계열 감축 추진

'콜드체인' 산업의 뚜렷한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냉장·냉동의 필수 요소인 냉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앞당기는 냉매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면서 구세대 냉매 감축과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에 대한 국회 입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의 운송 전반을 다루는 산업이다. 공급-수송-보관-유통-도·소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냉장이나 냉동 기술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온도를 낮추는 물질인 '냉매'도 전 과정에 활용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세계 콜드체인 시장은 2020년 1972억4000만달러(263조1970억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16.73%로 증가해 2024년엔 4275억3000만달러(570조49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 냉매 시장도 2022년 62억달러(8조2652억원)에서 연평균 6.2% 성

장해 2029년에는 94억5000만달러(12조 59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관련 산업이 커지면서 냉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나,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심화의 주범으로 지목돼 국제사회의 규제의 대상이 됐다.

1세대 냉매인 CFC(염화불화탄소) 계열,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계열은 오존층 파괴에 영향이 커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했다.

한국이 콜드체인 산업 전반에 쓰는 HFC(수소불화탄소) 계열 냉매는 오존층 파괴 영향은 없었으나,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아 문제다.

몬트리올의정서 총회는 지난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총회에서 HFC 감축과 대체 냉매로의 전환을 위해 '키갈리 개정서'를 채택했다.

한국은 당장 내년부터 HFC 계열 감축에 들어가 2029년에는 10% 감축, 2035년 30%, 2040년 50%, 2045년 목표인 80%를 달성해야 한다. 〈2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은폐하면 정권 몰락" 민주당, 채상병 사건 특검법 발의 /사진 뉴시스  
▲ 이준용 인사청문회 19~20일... 이경춘 전 회생법원장 증인 채택

▲ '대장동 허위 인터뷰'에 野 돌연 수세... 이재명 '계시물 비공개'  
▲ 강서구청장 공천 결정한 與 '내홍'... 김진선 당협위원장 탈당할 듯



▲ 조국, 윤 직격 "용산 전체주의...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 /사진 뉴시스  
▲ 평양서 다시 뭉치는 북·중·러... 북·중은 경제, 북·러는 군사에 초점

# “中 경기 불안, 국제유가 상승에 韓 물가 오르고 불확실성 커져”

## KDI, 9월 경제동향

지난달 소비자 물가 3.4% 상승  
수출 -8.4%, 전월비 감소폭 줄어  
농산물 가격 0.3%→5.4% 올라

중국 경제의 부진과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 등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9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중국 경기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중국 경제에 대해 “부동산 기업 금융불안, 부동산투자 부진 등 경기하방위험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또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일부 제약할 가능성도 존재한

다”라는 견해를 냈다.

이는 KDI가 지난달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것과 다소 대비된다. ‘중국·유가’라는 대외요인이 최근 대두된 탓으로 풀이된다.

‘경제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변동성이 큰 석유류 및 농산물을 중심으로 전월(2.3%)보다 높은 3.4%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25.9%→-11.0%)의 감소 폭이 축소됐다. 또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0.3%→5.4%) 가격이 크게 올랐다.

8월 수출은 전월(-16.4%)보다는 감소 폭이 축소된 -8.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은 반도체(-33.6%→-20.6%)의 감소 폭이 축소된 가운데 일반기계(3.2%→7.7%), 자동차(15.0%→28.7%), 선박(-30.9%→35.2%)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주요

품목에서 반등하는 추세다.

상품소비를 나타내는 7월 소매판매(1.5%→-1.7%)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및 고물가 등의 여파로 감소로 전환됐다.

내구재(8.3%→1.5%)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국산차(11.6%→-3.6%)가 감소로 전환했다. 수입차(38.1%→15.7%)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증가폭이 줄었다.

KDI는 “서비스업생산이 기저효과와 기상여건 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면서도 “안만한 증가 흐름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1의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개선세를 지속했다. 7월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모두 감소하며 전월(-2.4%)보다 하락한 -11.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4% 정기예금 상품 비교)

(단위:%)

은행	상품명	기본금리	최고금리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3.80	4.10
DGB대구은행	DGB함께예금	3.60	4.05
Sh수협은행	Sh첫만남우대예금	2.97	4.02
BNK부산은행	더(The)특판 정기예금	3.60	4.00
DGB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	3.75	4.00

/자료=은행연합회

## 4% 예금 재등장... 은행, 자금유치 사활

SC제일은행 등 5곳서 '4% 상품'

시중은행에서 연 4%대 정기예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예금금리의 준거금리가 되는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앞으로 3개월간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의 규모도 118조에 달할 전망이다. 하반기 은행들의 자금유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정기예금(12개월) 상품 중 우대금리를 포함해 금리가 4%를 넘는 상품은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정기예금(4.10%)과 DGB대구은행의 DGB함께예금(4.05%), 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4.02%), BNK부산은행의 더(The)특판 정기예금(4.00%), DGB대구은행의 IM스마트예금(4.00%) 등 총 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대금리를 포함하지 않은 정기예금도 금리가 3% 후반대에 머물렀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중 우대금리를 포함하지 않고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3.83%)이었으며,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3.75%)이 뒤를 이었다. 두 달 전까지만해도 연 3.47%~3.73%이던 금리가 최대 1.0%포인트(p) 상승한 영향이다.

정기예금의 금리가 상승한 배경은 예금금리의 준거금리가 되는 은행채(AA·무보증) 1년물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5일 은행채 1년물 금리는 3.87%로 전달(3.78%) 대비 상승했다.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미국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기준 미국 10년만기 국채 금리는 4.268%로 집계됐다.

예대울 한도 규제가 정상화된 점도 금리인상을 부추겼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해 은행의 예대울 한도규제를 100%에서 105%로 완화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와 함께 '찰칵'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들꽃마루를 찾은 시민들이 노랑 코스모스를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스

## 상장사 2511곳 중 53곳 '감사의견 비적정'

금감원, 2022년도 감사보고서 분석  
한정의견 7곳, 의견거절은 46곳  
적정의견 97.9% '기업규모 비례'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업의 경우 향후 상장폐지 가능성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2511개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 비율은 97.9%로 지난 2019년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97%대를 유지했다.

비적정의견은 전기 대비 15개사 감소한 53개사다. 한정의견 7개사, 의견거절 46개사다. 의견거절은 지난 2020년 65개사를 정점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비적정의견은 감사범위제한이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이었다.

감사인 지정 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96.6%로 자유수입 99.2%보다 2.6%포인트(p) 낮았다.

적정의견의 비율은 기업규모에 비례했다. 1000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5.6%로 가장 낮았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289개사로 전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영향과 관련한 강조사항 기재가 감소한 것이 이유다.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지만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한 것으로 기재된 회사 85개사다. 이 가운데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자산 1천억 미만)이 61개사로 70%가 넘었다.

2021 회계연도에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92개사)의 차기 상장폐지·비적정의견 비율은 12%로 미기재 법인(1.9%)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금감원은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

에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이 다음 해에 감사의견 변형,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미기재 법인에 비해 높았다”며 “중·소규모 상장법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향후 감사의견 변형,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음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법인 규모에 따른 회계법인 분포는 양분화됐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4대 회계법인(빅 4)의 감사비중은 92.4%에 달했다. 반면 자산 5000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법인은 빅 4 이외의 비중이 78.4%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제고와 감사품질 경쟁 촉진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회계법인은 가격중심의 수입 경쟁을 지양하고 감사품질 개선 노력을 통해 외부감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여성 단시간근로자, 남성보다 3배 많다

고용부, 고용형태공시 결과  
남성 3.6%, 여성 12.2% 달해

국내 사업장 내 기간제근로자 비중은 여성이 남성의 갑절인 데다, 단시간 근로자 비중도 여성이 남성의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300인 이상 기업(소속근로자 456만 명)에 대한 '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남성근로자 282만 명 가운데 단시간근로자 수는 10만1000명으로 비중이 3.6%에 그쳤다.

반면 여성근로자는 174만명 중 단시간근로자 수가 21만1000명으로 무려 12.1%에 달했다.

기간제근로자 또한 남자가 12.8%, 여자가 28.9%로 갑절 이상의 큰 격차를 보였다.

한편 300인 이상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소속근로자'(456만6000명·올해 3월 공시 기준) 수는 전년대비 26만1000명(6.1%) 늘어났다. 전체 근로자 중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81.9%)도 0.2%포인트(p) 증가했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339만4000명)는 14만5000명(4.5%) 늘어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117만2000명)도 11만6000명(11.0%) 늘었고, 그 비중도 25.7%로 소폭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친환경 냉매' 값비싸 현장사용에 부담

>> 1면 '온난화 주범 '냉매'서 계속

2019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1400만톤으로 이 가운데 콜드체인에서 사용하는 HFC 혼합냉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배출량의 7%(5000만톤)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19일 오존층과기물질에 HFC 계열을 추가하고 이를 제조하고 수입하는 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판매 계획에 대해 산업부 장관에 허가 및 승인을 받도록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자연냉매와 친환경냉매가 대체 냉매로 주목받고 있다. 자연냉매는 이

산화탄소, 암모니아 등을 사용해 대기에 해롭지 않고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 친환경냉매는 HFO(수소불화올레핀) 냉매 등으로, HFC 냉매의 대체품으로 개발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다만, 자연냉매나 친환경냉매는 가격적으로 기존 구세대 냉매보다 비싸 현장에서의 사용 부담이 크다.

다가오는 글로벌 규제와 이 속에서 대한민국 콜드체인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선 구세대 냉매를 실질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 냉매 시스템을 실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정치권 등 재조사 영향 일파만파 증권사 CEO 제재 수위 불투명



/유토이미지

## 살얼음판 증권가

금융당국, 검찰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재조사에 나서면서 증권업계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 수백억원이 가상화폐로 전환돼 일부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운용사는 물론 판매사인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조사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어 정치권, 증권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인사 의혹 연루 도마위 위협 적발시 대대적 수사 전망 "정치자금 수사로 번질 수 있어"

## ◆증권업계, 정치권 긴장감 고조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3년 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펀드 비리 사태가 재점화되고 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의 운용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 그 해 10월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선언한 사건이다. 이에 앞서 옵티머스는 2020년 투자 사기로 5000억원대 환매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기자회견실에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3개 자산운용사(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에 대한 추가 감사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중단 사태를 초래했으며 디스커버리 또한 2019년에 25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금감원 추산에 따르면 라임 펀드는 4473명에게 1조5380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입혔다. 옵티머스 펀드는 884명에게 5084억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디스커버리 펀드는 1278명에게 2612억원의 손실을 각각 입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야무야 넘어갔던 사안을 이복현 금감원장이 강한 의지로 재검토한 데다 검찰도 라임 펀드 환매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운용사, 증권사 등에 대해 조사하면서 정치권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특히 3대 펀드 사건 모두 전 정부 인사와 관련돼 있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정치권 로비 의혹 등 새로운 위협 행위가 드러난다면 야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야권 인사와 관련된 의혹이 확인될 경우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증권사 CEO 최종 징계 관심 ↑

라임펀드 사태 재조사로 인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최종 징계 수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받은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CEO들에 대한 제재 심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당시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또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처분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 심의에서 확정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조치부터는 징계 대상자의 연임이

나 금융권 취업이 향후 3~5년간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펀드 판매사들의 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이달 13일과 27일에 열리는데, 추석 명절과 국감 준비를 고려하면 제재를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업계에서는 향후 금융당국이 증권사 CEO 제재를 어떤 수위로 확정할지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금융당국이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에서 일

부 패소한 만큼 이번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CEO 징계수위 관측 엇갈려 국감 이후 결론... 법리적 분쟁 관건 금융위 "제재, 내부 절차대로 진행"

반면 일부에서는 기존 법으로도 증권사 CEO를 충분히 중징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DLF 판결 당시 법원이 모두 금융사 손을 들어준 것

이 아닌 만큼 이번 라임펀드 사태도 법리적으로 다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혜성 환매 의혹의 초점이 판매사 연루 여부를 겨냥하고 있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라임 사태 재조사·재수사가 CEO 제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여부를 보고 있으므로 금감원 감사나 검찰 수사와 관계 없이 내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증권업계 "투자자 불신 커져... 시장 악영향"

## >> 1면 '특혜의혹 재점화...'서 계속

증권업계에서는 잦은 수사와 조사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올해 10대 대형 증권사 가운데 검찰의 압수수색, 금융감독원의 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을 겪지 않은 곳이 없다. 라임펀드 환매 사태,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채권형랩·신탁상품 불건전

영업 관행,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 등의 사유로 증권사들은 조사를 받았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전례 없는 대형 이슈가 자주 터지고 있으나 결과가 전혀 없어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당국이 증권사의 책임으로 모두 돌리는 것은 어려운 시장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관희 기자

헤아림

“자동차만 풀체인지?”

이제 운전자보험도 풀체인지

NH다이렉트운전자보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강화되는 교통법규에 맞춰  
특약과 보장을 확 넓혀 운전자를  
더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보증은 더 크게, 특약은 더 넓게 NH다이렉트운전자보험

**[운전자 중과실 형사적 책임 보상]**  
해당 특약 가입시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상태에서 운전은 제외

**[비운전자까지 보장]**  
해당 특약 가입시

**[납입면제]**  
단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납보 제외

**[보험료 할인]**  
NH보험금용 ESG캠페인 서약시 2%

\* 상품가입 전 직권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고, 보험회사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원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대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하,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의 보험계약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별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공제계약 포함) 약률변동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스승존중지원금, 스승존중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등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거나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는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시 보상이 제외됩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금액지급시한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02419호(2023.07.20~2024.07.19)

www.nhfire.co.kr 1644-9000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보험손해보증이 후원합니다

# 르노만의 혁신 디자인 철학... 강화된 '상품·서비스' 묻어나

## 르노코리아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가  
방문객 접점 확대 차량 시승 행사  
야외 광장서 '르노 시티 로드쇼'

“디자인적 관점으로 차량을 즐겼으면 좋겠다.”

르노코리아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 공략을 위한 디자인 철학을 공유하고 르노 익스피리언스 밸류업을 통해 강화된 상품과 서비스 알리기에 나선다.

르노코리아는 7일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서 개막한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본전시(주제전) 중 테크놀로지관(1관)에 전시관을 마련했다. 르노의 디자인 철학, 미래의 방향, 차량 디자인부터 실제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다. 방문객들의 접점확대를 위해 차량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시승행사도 준비했다.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차량 위에서 선보이는 ELECTRO POP(일렉트로 팝)으로 르노의 로고인 '로장주'와 르노코리아의 엠블럼인 '태풍의 눈'이 각도에



7일 개막한 제 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르노코리아 전시관에 전시된 XM3.

따라 교차되어 보이는 조형물이다. 하나의 조형물로 만들어진 두 개의 엠블럼은 프랑스와 한국이 만나서 문화적, 기술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

이날 전시장에서 만난 김민영 르노코리아 수석디자이너는 “모터쇼는 차량에 관심있는 관람객들이 많지만 디자인 비엔날레에서는 디자인적 관점으로 차량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풍의 눈 로고를 사용하고 있지만 르노 본사와 긴밀하게 디자인 작업을 하

고 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다양성과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 전시된 XM3E-TECH 하이브리드는 차량 디자이너들이 목업 차량에 라인테이프로 선과 면을 다듬으며 새로운 차량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상상할 수 있도록 랩핑되었다. 또 디자이너들의 실제 스케치를 담은 디자인 월과 제작생산 과정을 담은 영상까지 선보이고 있다.

르노코리아의 SM6를 비롯해 QM6,



르노코리아 김민영 수석 디자이너.

XM3 등은 공개와 함께 실내의 디자인에 대해 주목받았다. 특히 XM3는 SUV이지만 스포츠세단의 날렵한 느낌을 담아 세련된 모델로 탄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동차전문기자협회로부터 디자인상을 받은 바 있다.

김 수석디자이너는 “신차 개발 과정에서 르노만의 새로운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다”며 “익숙함을 갖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보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를 주도한 르노디자인센터 서울의 벤상 페트레티 디렉터는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르노를 선보이고 싶었다”며 “많은 방문객들이 르노를 즐기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엔날레 전시관 야외광장에서는 9월 10일까지 ‘르노 시티 로드쇼’를 진행한다. 새롭게 발표한 르노 익스피리언스 Value up을 통해 강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행사로,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은 르노코리아 전 차종 시승 및 구매 상담뿐 아니라, 새롭게 적용된 스마트워치 앱 체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서울과 광주를 거친 ‘르노 시티 로드쇼’는 10월 9일까지 대전, 경기(기흥), 부산(김해)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을 만나다(Meet Design)’라는 주제로 열리며 LG전자와 르노코리아를 비롯한 약 200여개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2663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양성문기자 ysw@metroseoul.co.kr

## F-가스 통합법 필요... 친환경 전환 보조금 지원 절실

냉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없어  
부처별 나눠진 업무 한 데 모아야  
韓 아직도 냉매 관리 걸음마 단계

콜드체인 산업에 필수적인 염화불화탄소(CFC) 계열, 수소염화불화탄소(HFC) 계열, 수소불화탄소(HFC) 등 구세대 냉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려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맡은 업무를 한 곳에 모아 냉매 수입부터 회수 및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7일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산업부는 냉매의 수입 등을 관리하고 환경부는 폐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을 담당한다”며 “냉매가 수입됐을 때부터, 그리고 사용한 뒤 폐기하는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냉매 통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냉매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 통계가 없으니 지금까



양이원영·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콜드체인 산업 온실가스 감축 토론회’에서 사회자와 토론자의 모습. /기후변화센터

지 얼마나 배출됐는지, 감축이 됐는지 모르는 상태다. 최근 유럽이나 일본도 계속 냉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며 “그래서 입법 조치를 국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냉매만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F-가스(불화가스) 통합법 같은 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은 경제산업성·환경성·국토성 등 관계 부처 통합으로 냉매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냉매 관리가 걸음마 단계다. 실제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2019년 냉매의 연평균 생산량(제조+수입) 대비 회수 실적은 3년 평균 0.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무총장은 “일본 같은 경우는 자

동차를 폐차하면 폐냉매에 철제 부품까지 다 가격 처리를 해준다”며 “반면, 한국은 폐차를 하면 그 폐차 한 대 가격으로 끝난다. 업자들이 굳이 폐냉매를 회수해야 할 유인책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냉매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를 열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의 보좌진은 이날 통화에서 “냉매 관련 통계나 친환경 냉매 전환 시 지원을 해주는 입법안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지만, 문제 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하는 콜드 체인 산업의 관점에서, 친환경 냉매 개발과 전환에 국가적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세계 5위의 냉동공조기기 생산국인 한국의 기업들의 활동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양이원영·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콜드체인 산업 온실가스 감축 토론회’에서 최준영 대한설비공학회 차기 회장은 HFC

계열 냉매를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 합산하지 않는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 기준과 이를 포함하는 글로벌 ESG 기준이 상충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적 신뢰 저하와 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중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연구위원은 “자연냉매 냉동장치는 독성과 가연성, 높은 압력 때문에 고도의 기술역과 제조역량이 필요하다. 생산단가가 높아 기존 HFC 계열 냉동장치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다”며 “한국은 자연냉매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개발 및 제조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로, 현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방안 없이 HFC 계열 감축이 시행되면 국내 콜드체인 냉동장치 관련 제조업이 선진국 수입 완제품에 밀려 파괴된다”고 전망했다.

권 연구위원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해외 시장에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친환경 냉매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기존 프레온 설비 교체 및 신규 설비를 포함하고, 전체 보조금의 규모는 최소 500억원으로 사업체 전체의 공사금액의 50%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웅 기자 pth7285@

## 韓 기업·자영업자, 고금리에 회사채보단 '은행 대출'

한은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2분기 산업별대출 잔액 1842.8조

2분기(4~6월) 우리나라 기업과 자영업자가 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금이 24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보다 길어진 고금리 상황에 회사채보다 은행을 찾아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에 따르면 2분기(4~6

월) 산업별대출 잔액은 184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 대비 24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4분기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서정석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회사채 발행의 메리트가 줄었다”며 “기업들이 자금마련시 회사채발행보다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더 선호하며 대출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증가폭은 축소

된 반면 서비스업은 확대됐다.

제조업 대출금은 447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조6000억원 늘었다. 전분기 증가폭(11조원)보다 축소된 수준이다.

서 팀장은 “수출기업 등의 자금사정이 개선되며 운전자금 수요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의 대출금은 1188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조4000억원 늘었다. 금융·보험업은 신탁계정 어음 매입

대출이 축소되고, 금융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늘어난 영향이다. 부동산업 역시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며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됐다.

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은 증가폭이 축소되고 시설자금의 증가폭이 확대됐다.

운전자금은 임금·이자 등의 지급, 원재료 매입 등을 목적으로 실행된 단기대출을, 시설자금은 건물의 신·증축, 기계·설비의 구입·설치를 목적으로 실행된 장기대출을 말한다.

운전자금은 서비스업과 전기가스업 등을 중심으로 확대됐지만 제조

업 증가폭이 축소돼 9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증가폭(11조4000억원)보다 축소된 수준이다.

시설자금은 제조업 중 반도체, 자동차업의 시설투자 등이 늘고, 서비스업 중 부동산업이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15조원 확대됐다.

업권별로는 예금은행의 증가폭이 17조4000억원에서 22조5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3조3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나유리 기자 yu115@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on**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 이 작품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과 시가 함께 그린픽처입니다 ]  
#눈 폭풍 덮친 북미 #대규모 정전 #SK온 배터리 #44시간 전력 공급

작품명 **눈 폭풍 속 SK온 배터리**

북미 눈 폭풍, 정전 속에서도  
44시간 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한계를 넘어서  
SK온의 글로벌 배터리 기술력 덕분이었습니다

*Hi*

SK온의 **그린픽처**

# “북핵, EAS 참석국 모두 타격... 국제사회 결의 보여줘야”

(동아시아정상회의)

## 尹, 인도네시아서 EAS 참석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무거워”  
대북제재 막는 러시아·중국 겨냥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법 위반 행위  
남중국해·미얀마 폭력사태 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 참석해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

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러시아·영국·중국·프랑스)이면서도 지속적

인 거부권 발동으로 추가 대북제재를 막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불법행위 차단 필요성과 함께 “북한의 WMD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며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시 70여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며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키우를 직접 방문해 인도 지원, 안보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가 공약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해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 있게 기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라며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기반의 해양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

안과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한다”며 “한국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세계의 성장과 번영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 달려 있다며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며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책임 있게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인태 국가들과 모두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한덕수 “긴축정책, 전 정부 탓... 정부·국민 허리띠 졸라매야”

(국무총리)

박범계 “유독 韓 경제 침체” 질문에 한 총리 “전 정부 국가부채비율 커 3고시대... 옛날처럼 확장정책 못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부채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와 국민이 모두 “허리 띠를 졸라 맬 때”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7월에 한국의 산업활동 3대 지표(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이어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때문에 옛날처럼 마음놓고 확장 정책을 쓰지 못한다”며 “중요한 것은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국가 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 쪽에서 위기 상황을 맞지 않는 것을 주안점을 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이 경제 침체 현상은 전 세계적인데도 유독 한국이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50% 달하고 400조원 늘었다”며 “우리 모든 경제는 대외 요인에 의해 평가받는 처지다. 우리는 결국,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성장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가 참여정부 제3대 경제부총리였던 점을 들어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의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한 총리의 철학이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참여정부의 1대 경제부총리는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었다. 2대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4대는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가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 한 총리가 대한민국을 ‘악한 존재’라고 치부한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악한 측면이 있다. 우리 통화가 국제적 수용성 측면에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시·미시 경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마치 세계적인 기축통화의 반열에 이른 것처럼 무분별한 재정 운용을 하게 되면, 국가부도사태로 이어진다”며 “어느 정부와 정치인이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싫어하나. 국가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위해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는 고통스런 요구를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與 “엑스포 유치 총력”... 野 “오염수로부터 제주도민 보호”

김기현·박광온 각각 부산·제주 방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부산광역시 방문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떠난 반면, 박광온 원내대표는 제주도로 내려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앞서 준비를 시작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막강한 경쟁국이지만, 막판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한다면 11월말 5000만 국민을 열광케 하는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능도 마지막 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달리기 제주도 마지막 한바퀴 스피드가 메달 색을 결정한다. 보다 많은 회원국의 마음을 부산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타 임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엑스포를 유치하면 총 61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5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4000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 등 관계자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의 실질화를 통해 제주도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

민주당이 ‘긴축을 강조하다 보니, 국민의 삶을 외면한 예산’이라는 지적을 했다. 꼭 필요한 민생 안전과 국민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 오고 있다”며 “예산안 긴축편성이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지자체의 민생 사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고,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주 수산업의 피해가 4000억원 이상으로 현재 추산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며 “해양투기를 중단시키는 것이 당의 목표이고, 그것이 제주도민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 이재명 대표, 檢 9일 출석... “당당히 맞설 것”

“檢 사상 초유의 강압소환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검찰은 번번히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소환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날(6일)까지 이 대표 측은 오는 12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7~9일 사이 피의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박 대변인은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



무기한 단식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화 봉호동 전투 단체 상영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라며 “헌법이 규정한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들이 저열(低劣)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正大)하게 나아가겠다”면서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탤런트 이 경영



#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AMAS맞춤깔창 판매점 모집

삽인삽/한평삽/무점포

맞춤깔창의 대중화 선언

극소자본 창업

AMAS장비 무상지원

1년 무상 리폼을 통한  
확실한 애프터서비스!

키 자세를 바르게 하여  
가 수욱~쑥

어린이성장깔창

10분 만에 측정하고 제작을 완성하는  
초간편! 초저가! 최고의 가성비!



세상 사람들의 발 아치(족궁)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깔창을 신고 있습니다.

제2의 심장  
발



극소자본.최상매출.광역상권 [www.amas7.net](http://www.amas7.net)  
총판.판매점 문의 1660-1642

82305381365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인증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 “기업금융 ‘명가’ 재건... 2027년까지 기업대출 30조 순증”

## 우리은행 전략 발표회

대기업·중소기업 부문 집중  
대출자산 기업 비중 60%로  
건전성 우려 심사인력 확충  
300개 중견기업에 4조 지원

우리은행이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위한 목표로 오는 2027년까지 기업대출 점유율 1위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우리은행은 7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위한 전략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과 정진완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장을 비롯해 우리은행 내 대기업·중소기업 부문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은 “오는 2027년까지 대출을 총 30조 원 이상 늘리겠다”며 “대출자산의 기업 비중을 기존 50%에서 60%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의 기업대출(대기업+중소



장광의 우리은행 브랜드홍보그룹장(왼쪽부터), 강신국 기업투자금융부문장, 정진완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장이 7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개최된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위한 전략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기업)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35조 7000억원, 가계대출은 132조 7000억원이다. 기업과 가계대출 비중은 50.5대 49.5로 집계됐다.

강 부문장은 “기업금융 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금융에 강한 역사적 전통과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활력 제고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며 “신성장 산업 등 기업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기업대출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문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상반기 기준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약 160조815억원으로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기업대출 잔액(167조3000억원)을 기록한 KB국민은행에 이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지난해 말 대비 성장률로 비교하면 우리은행의 성장률은 1.9%로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낮으면서 저조한 성

장률을 보였다.

강신국 부문장은 “현재 대기업 대출의 경우 연 평균 30% 성장, 중소기업 대출은 연 평균 10% 증가를 목표로 설정했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건전성 리스크 우려도 있는 만큼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현장심사에 적극 나서는 등 이와 관련된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견기업은 2028년까지 300개 기업에 총 4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부 합동 사업인 ‘라이징 리더 300’에 19개사 2000억원 지원을 완료했고, 방산과 이차전지, 반도체 등 신성장산업에 매년 4조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은행권 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단순 대출만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비이자 전략 영업을 추진하고 공급망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고도화와 함께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항공결제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한다. 이종산업 간 제휴 모델을 활용해 기업금융의 새

로운 영업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금융 전문인력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구축한다. 기본급여의 최대 300% 내 성과를 보상하는 방안이다. 심사는 신성장산업 전담 심사팀을 구축하고 심사 속도와 건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정진완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장은 “기존 은행 체계는 호봉제에 아직 그치는 단계지만 기업 금융에 있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업금융에 강한 사람은 계속 남아있으면서 임원까지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관리 효율성 때문에 중소기업 여신을 늘리는 것을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자본비율 문제 때문에 무조건 크게 늘리지는 않는다”며 “무작정 늘리면 문제가 있지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업종, 돈이 흘러가면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종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여전사, 대손비용 증가로 순이익 22% 뚝

(전년 동기 대비)

156곳 상반기 순이익 1조6171억  
대손충당금 8925억 추가 적립

올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실적이 악화됐다. 대손비용이 늘었고, 연체율도 높아지는 등 건전성도 나빠졌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56개 여전사(신용카드사 제외)의 상반기 중 순이익은 1조61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했다. 수익이 늘었지만 대손 비용 등의 증가폭이 더 컸다.

여전사의 총자산은 6월 말 기준 236조1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8% 증

가했다.

고유업무 자산은 할부금융자산과 리스자산이 각각 1조4000억원, 1조 1000억원 늘었다. 대부분 자동차금융 자산이다.

반면 대출채권은 8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줄었지만 기업대출은 1조4000억원 늘었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1.78%로 전년 말 대비 0.53%포인트(p) 상승했다.

고정비율여신비율은 2.09%로 전년 말 대비 0.55%p 상승했다. 상승폭은 1분기 0.35%p, 2분기 0.20%p다.

상반기 중 대손충당금 8925억원을 추가 적립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33.3%로 전년 말 대비 3.9%p 상승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7.3%로 경영지도비율인 7%를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통화 긴축 지속 여부와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등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을 감안해 부실채권 정리 확대와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채권시장과 여전사 유동성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이창용 한은총재 BIS 총회 참석차 9일 스위스 출국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한국은행은 7일 이 총재가 BIS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9일 출국해 13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0일과 11일 세계경제회의, 아시아지역회의,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 등에 참석해 회원 중앙은행 총재들과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또 BIS 이사자격으로 BIS 이사회와 경제자문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하나은행-중앙대, 맞춤형 인재양성 맞손

금융 데이터 분석, 은행 실무기초 등  
하나銀 전문인력 참여해 강의 진행

하나은행이 지난 6일 중앙대학교와 함께 금융 데이터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 산업군에서 데이터·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금융 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금융 데이터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하나은행은 중앙대학교 내 신설되는 ‘Data & Privacy’ 전공 교과목에 하나은행 디지털·데이터 전문 인력이 직접 참여해 약 4~6주간 실무 중심의 디지털 금융·데이터 분석·은행 실무 기



이승열 하나은행장(왼쪽)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박승규 중앙대학교 총장과 금융 데이터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초 등의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공동연구 등을 위한 원활한 데이터 기술 개발 협의 ▲학술 및 산업현장에서의 최신 정보 공유 ▲상호 교류와 협업 지원을 위한 보유 자원 활용 등에서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해 전공 라운지 및 별도 공간을 중앙대학교 내에 조성키로 했다.

/구남영 기자



경북 산북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6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메리츠화재

## 메리츠화재, 농어촌학생 초청 금융캠프

### 보험 브리핑

DB손보, 품질 분임조 대회 금상  
캐롯손보 ‘퍼마일’ 재가입률 91%

메리츠화재가 농어촌초등학생들을 위해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 ◆ ‘서울초청 금융캠프’ 개최

메리츠화재는 지난 6일부터 2박 3일간 경북 산북초등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서울초청 금융캠프’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초청 금융캠프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금융 및 문화체험 활동이 어려운 농어촌 초등학생들을 서울로 초청해 수학여행 형태로 운영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참가 학생들은 1일차인 6일에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를 방문해 금융과 투자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경북 공방문과 한강유람선 투어 등 서울 시내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DB손해보험의 서비스 시스템이 산업계 품질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 ◆ 분임조 경진대회 7년 연속 수상

DB손해보험은 산업계의 전국체전으로 불리는 ‘제49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금융업계 최초로 7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도별 지역예선을 통과한 전국 273팀, 2500여명의 분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DB손해보험은 서비스 부문과 자유형식(서비스) 부문에서 각각 최고 상인금상을, 사회적가치창출 부문에서는 은상을, 사무간접과 R&D 부문에서는 동상을 수상했다. 이번 5개 부문 수상은 해당 대회에 참가한 이래 가장 많은 부문에서 수상한 것이다.

캐롯손해보험의 퍼마일자동차보험 재가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 퍼마일차보험, 재가입률 91.3%

디지털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캐롯)은 지난 8월 기준 퍼마일자동차보험 고객들의 재가입률이 91.3%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퍼마일자동차보험은 2020년 2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 138만 건을 돌파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1년 마다 갱신해야 한다. 고객이 기존 보험사와의 계약을 연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재가입률은 서비스 만족도와 브랜드 및 상품에 대한 충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는 설명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김영섭 “올해 구조조정 안겠다… 통신비 인하, 고민해봐야”

(KT 대표)

## KT 기자간담회

내부인사 중심 영입 시사  
“최대한 KT 다운 것 지향  
디지털 로드맵 변화 없어”

“CEO가 바뀌 때마다 수천명에 이르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올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겠다.”

김영섭 대표는 7일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인사는 여러 문제를 견어내고 KT인들이 마음을 합해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간 인사는 11~12월에 하게 되고 가급적 공백이니까 빠르게 하고 싶지만 회사 내 사정이 있어서 적절한 시점에서 인사를 해야 할 듯하다.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현재는 위계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외부에서 인사를 많이 영입할 것이며 LG 출신이라 LG에서 인사를 데리고 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데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사를 단행할 것이며, 누가 봐도 이상하다 이해 못 하겠다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 훌륭한



김영섭 KT 대표가 7일 서울 중구 명동의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T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가 KT 내에 있으면 좋다. KT 내의 훌륭한 사람을 선택해 보직을 맡기고 성장의 길을 가도록 하겠다. LG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LG 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다. KT 중심으로 가고, 외부에서 영입해도 LG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KT가 생각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 “KT는 텔코 사업에서 오랫동안 기술 수준 1등을 기록하고 있다. 텔코 전반의 역량은 IT 역량이 충족되면 진출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들이 많이 나타난다. 스마트시티 등이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IT 분야와 결합해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 성장 원동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에서 카르텔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사조치가 첫번째로,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건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항간에 저 사람은 누구 줄이다, 누구 편이다라는 얘기가 퍼져 있다. 좀 전까지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역량의 고도

화,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수하게 협업하는 조직을 만들 생각이다.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이 인재다. 지향한 바를 새롭게 설정할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KT 다운 것을 지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향후 M&A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스타트업 인수를 필요한 수준까지는 하겠지만 인수를 많이 해서 큰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은 거의 없다. 전문 영역에서 최고로 잘 하는 조직들과 고수다운 에코시스템 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역량을 주고 역량을 받아온다면 역량이 곱해지기 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런 형식으로 도모를 해야 경쟁요소가 속도전으로 바뀌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변화인데,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현도 전 KT 대표가 추진했던 디지코(DIGICO) 전략에 대해서도 그는 “IT 역량을 CT와 통합해서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KT의 디지코 전략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로드맵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KT 문화에 대해 “KT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품어온 자부심이 많다. 좀 더 분발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창의적인 가치를 선도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큰 방향도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통신 분야의 과제에 대해 “통신의 혁신도 IT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 통신도 과제가 많지만 젤 우선적인 과제가 IT 역량과 빠른 시간 내에 섞이면 통신역량도 배가 된다. 대표이사를 맡고 나서 좋은 정책을 정부가 하라고 들이밀기 전에 좋은 정책을 만들어 많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주가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주주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이다.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책을 구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장 에너지를 축적하고 주가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를 베이직으로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HD한국조선해양, 연간 수주목표 조기 달성

VLAC 4척 수주… 누적 159.4억만弗  
“친환경 선박 시장 이끌어 나갈 것”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올해 누적 수주금액 159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수주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스텍 2023’ 행사에서 싱가포르 EPS사, 그리스 캐피탈(CAPITAL)사와 8만8000㎢급 암모니아 운반선(VLAC) 4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총 6168억원 규모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추가 수주로 누적 수주금액 159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목표치(157억4000만달러)의 10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선박은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

돼 2027년 하반기까지 두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또 이번 계약에는 옵션 2척이 포함돼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발주된 27척의 초대형 LPG·암모니아 운반선 가운데 70%가 넘는 19척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기존 초대형 가스운반선과 비교해 암모니아 선적 용량을 탱크의 86%에서 98%까지 크게 늘렸다. 울드파나막스급 선박에서는 세계 최하다.

이 선박은 LPG 이중연료추진 선박이지만 향후 암모니아 추진 엔진이 개발 완료되면 선주와의 협의를 통해 암모니아 추진선으로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양이 변경되면 이 선박은 세계

최초의 암모니아 추진·운반선이 된다.

현재 HD현대중공업은 대형 엔진 원천기술 보유 회사인 MAN ES, WinGD 등과 협력해 내년을 목표로 암모니아 추진 대형엔진을 개발 중이다.

아울러 이날 HD현대중공업은 EPS사 및 미국선급협회(ABS), 독일 만 에너지솔루션(MAN ES)·싱가포르해양항만청(MPA)과 암모니아 이중연료추진 운반선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풍부한 가스선 건조 경험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꼽히는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에 성공했다”며 “선제적인 기술개발 노력으로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포스코인터-에퀴노르, 친환경 사업 맞손

‘반딧불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7일 세계적인 에너지기업 에퀴노르와 ‘친환경분야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해상풍력사업 공동개발 협력 ▲저탄소 수소·암모니아사업 공동개발 협력 ▲강제 공급망 구축 ▲LNG 사업 분야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에퀴노르와 ‘반딧불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기로 했다. 경북 울산시 연안 70km 해상에 15MW급 풍력발전기 50기를 설치해 총 750MW규모의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을 구축하는 사업

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 외에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해결을 위해 에퀴노르와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분야 공동사업 개발 기회 발굴, 해상풍력향 강제 공급망 구축, LNG 전 밸류체인(탐사-생산-저장-발전) 분야의 사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전척 포스코인터내셔널 에너지부문장은 “회사는 이번 MOU를 통해 글로벌 선진기업과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보와 개발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분야에서도 포괄적 협력을 이어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생태계를 꾸준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갤럭시 Z 폴드5 톰브라운 에디션 /삼성전자

### 삼성전자

#### ‘폴드5 톰브라운 에디션’ 공개

삼성전자가 패션 브랜드 톰브라운과 협업한 ‘갤럭시 Z 폴드5 톰브라운 에디션(Galaxy Z Fold5 Thom Browne Edition)’을 공개했다.

‘갤럭시 Z 폴드5 톰브라운 에디션’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LG, ‘슈퍼스타트데이 2023’ 개최

스타트업 9곳 협업 성과 공유

LG가 육성한 유망 스타트업들이 모여 그동안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했다.

LG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슈퍼스타트데이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슈퍼스타트데이는 LG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행사다. 2018년 처음 시작해 올해 6회째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는 LG가 집중 육성하는 ‘ABC(AI, Bio, Cleantech)’를 비롯해 소부장과 라이프스타일 분야 스타트업

40곳이 참여했다.

LG가 직접 발굴한 스타트업 중 9곳이 1년간 협업 성과를 공유했다. ▲동물 행동 데이터 기반으로 반려견·반려묘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우주라컴퍼니’ ▲최적의 물류 배차·경로 등 이동관련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위모빌리티’ ▲위성 영상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한 ‘메이 사플래닛’ 등이다. /김재용기자 juk@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현대차, ‘2024 아이오닉 6’ 출시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의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한다.

현대차는 아이오닉6의 연식변경 모델 ‘2024 아이오닉6’을 이달 8일 출시하고 판매를 본격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엔트리 트림인 익스클루시브부터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레인 센서, 전자식 룸미러(E CM)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을 기본 적용했다.

최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는 보스(BOSE) 음향시스템을 기본 탑재했다. 아이오닉6 출시 1주년을 기념해 트림별로 선호도가 높은 2개 선택 품목을 묶은



현대차 2024 아이오닉 6

‘1주년 기념 패키지’도 도입했다.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트림은 고객 선호 사양으로 재구성하면서 가격은 70만원 인하했고, 그외 트림은 가격을 동결했다고 현대차는 밝혔다.

/양성운 기자

# HDR·배터리 2배... 전문성 높여 돌아온 고프로 '액션캠'

**‘히어로12 블랙’ 출시 간담회**  
 소비자 원하던 기능 대거 추가  
 HDR 지원으로 생동감도 더해  
 카메라 돌리지 않고 세로 촬영



고프로 글로벌 파블로 리마 제품 매니지먼트 부문 부사장이 히어로12 블랙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프로가 소비자 니즈를 적극 반영한 신모델을 출시했다.

고프로는 7일 서울 동대문 브이스페이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히어로12 블랙을 출시했다.

히어로12블랙은 고프로가 새로 출시한 플래그십 액션캠이다. 전세계 액션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로, 최근에는 일반 사용자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다만 경쟁 모델이 꾸준히 늘어나는데다가 획기적인 성능 개선도 보이지 않던 상황, 고프로는 히어로12블랙에 소비자가 원하던 기능을 대거 추가하며 바뀐 이유를 만들었다.

히어로 12블랙은 우선 배터리 사용 시간을 크게 개선했다. 전작 대비 2배에

달한다는 설명. 1080p 30프레임을 사용하면 최대 155분까지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 고성능 엔듀로 배터리도 기본 탑재해 저온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HDR도 지원한다. 다양한 노출 프레임을 합쳐 생동감을 더하는 기능으로 고프로에서는 처음이다. 하이퍼스무스도 6.0으로 업그레이드해 최대 4배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 더 안정적으로 영상을 촬영한다.

세로 촬영 모드도 추가했다. 카메라를 돌리지 않아도 가로 상태에서 9대16 비율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 기존에 마운트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화각이 177도에 달하는 맥스렌즈모듈 2.0도 더했다. 180도에 가까운 모습



고프로 히어로12 블랙에 맥스렌즈모듈 2.0을 장착한 모습.

을 담을 수 있어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전문성도 높였다. 10비트 색상에 이어 색상 코드를 저장하는 GP로그와 LUT를 통해 전문가들도 더 정확하게 색상을 보정할 수 있다. 다양한 툴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게 가능해졌다. 또 블루투스 장치를 4개 연결하고, 일반 카메라 마운트까지 호

환한다.  
 인터페이스도 편의를 더했다. 해상도를 터치만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고, 모바일 앱인 퀵을 데스크탑용으로 출시 예정이다.

이미지센서는 전작과 같다. 고프로는 작은 크기와 화면 비율, 초점 거리를 고려해 센서를 키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격은 히어로12 블랙이 55만8000원, 전문 기능을 더한 크리에이터 에디션은 85만8000원이다. 맥스렌즈모듈 2.0은 14만9000원에 책정했다.

고프로 창립자 겸 CEO 닉 우드먼은 “히어로12 블랙은 역대 최고의 영상 품질 및 안정화 성능은 물론 향상된 배터리 효율과 사용성으로 고프로 역사상 가장 완성도 높은 제품이다”라며, “히어로12 블랙을 포함한 플래그십 라인업으로 모든 사용자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도 액션 카메라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엔씨, 소통의 첫 결실 ‘퍼즈업’ 글로벌 시장 출격

데브로그 통해 재미포인트 소개  
 엔싱 실제게임 출시 첫번째 사례  
 한국어·영어 등 11개 언어 서비스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엔씨(NCing)을 통해 공개한 신작 중 하나가 글로벌 이용자를 만날 준비에 나섰다. 모바일 퍼즐 게임 퍼즈업 아미토이(PUZZUP AMITOI, 이하 퍼즈업)가 그 주인공이다.

엔씨(NC)는 오픈형 R&D 개발문화 엔씨(NCing)을 통해 다수의 신작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개발 취지, 제작 과정, 비하인드 스토리 등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공유하면서 이용자와의 소통을 확대했다. 퍼즈업은 지난 2월 트레일러 영상을 통해 첫 공개됐으며, 개발진이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브로그(Devlog)를 통해 퍼즈업만의 재미 포인트를 소개했다. 퍼즈업은 엔씨(NC)의 소통 행보를 보여주는 엔싱(NCing) 콘텐츠가 실제 게임으로 출시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엔씨(NC)는 지난 4일부터 퍼즈업 공식 홈페이지 및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사전등록을 시작했다. 9월 26일 글로벌 35개 지역에 동시 출시 예정이며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11개 언어로 서비스한다.

퍼즈업은 3개 이상의 블록을 맞추는 일반적인 3매치(3-MATCH) 퍼즐 게임에 ‘방향키’ 요소를 추가해 차별성을

더했다. 이용자는 방향키를 사용해 떨어지는 블록의 방향을 상하좌우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전략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플레이 가능하다. 다양한 특수 블록과 매 단계 주어지는 새로운 미션들은 퍼즐 맞추는 재미를 배가시킨다.

이용자들은 퍼즐플레이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퍼즈업을 즐길 수 있다.

엔씨(NC)는 퍼즈업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와의 점점 확대에 나섰다. 9월 5일부터 NC 다이노스와 연계하여 창원NC파크에서 퍼즈업 세계관을 체험할 수 있는 ‘퍼즈업워크(PUZZUP WEEK)’를 진행한다. 관람객들은 포토부스, 미니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 ‘퍼즈업 굿즈’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사전등록에 참여한 이용자를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다이노스 티스토리에는 퍼즈업 테마로 운영되며 NC 다이노스 선수들은 퍼즈업 스페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엔씨(NC)는 퍼즈업 공식 SNS 채널도 오픈해 이용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퍼즐 게임은 쉽고 단순한 조작 방식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 10대부터 중년 여성, 60대 장년층까지 말 그대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장르다. MMORPG로 탄탄한 이용자층을 가진 엔씨(NC)가 퍼즈업을 통해 글로벌 이용자 층 확대에 나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빛나 기자 vitna@

## 삼성전자 고사양 게이밍 최적 ‘990 PRO’ 4TB 출시

삼성전자 SSD가 4TB까지 용량을 키우면서도 더 빠르고 얇아졌다.

삼성전자는 SSD 990 프로 4TB 제품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일반 모델과 방열 기능을 강화한 ‘990 프로 워드 히트싱크 4TB’다.

삼성전자는 1년여 만에 용량을 2배로 늘렸다. 지난해 10월 990 프로 1TB와 2TB를 출시한 바 있다. 8세대 V낸드 플래시를 탑재했다.

연속 읽기와 연속 쓰기 성능이 각각 최대 7450 MB/s, 6900 MB/s이다. 임의 읽기와 임의 쓰기도 각각 최대 1600K IOPS, 1550K IOPS로 PCIe 4.0 기반 소비자용 SSD 중에서는 가장 빠르다.

전력 효율도 최대 50% 향상됐다. 니켈 코팅한 컨트롤러로 발열 제어 기능을 높였고, 모델별로 열 분산 시트와 히트 싱크를 부착해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김재용 기자

## LGU+,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전략 투자 SKT, 정보 보호 국제표준 인증 획득

하이웹툰서비스 쇼츠 IP 확보 추진

LG유플러스가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IP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7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콘텐츠 전문 스튜디오인 ‘STUDIO X+U’를 론칭한 이후에는 첫 번째 콘텐츠 관련 투자다.

재담미디어는 ‘악한영웅’, ‘동네번호사 조들호’, ‘청춘블라썸’ 등 500여편의 인기 웹툰을 각종 플랫폼에 공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 IP(지식

재산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웹툰 제작사다. 악한영웅은 재담미디어의 매출 2배 성장을 견인했으며 동네번호사 조들호는 지상파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LG유플러스는 오는 10월 오픈 예정인 재담미디어의 신규 웹툰 플랫폼 ‘하이웹툰서비스 쇼츠’의 원천 IP를 선별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자체 플랫폼을 비롯 국내외 미디어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네트워크 보안, 재해 복구 등 박차

SK텔레콤은 퍼블릭 클라우드 운영 관리 및 관련 서비스를 대상으로 정보 보호 관리체계와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ISO/IEC 27001, 27017, 27018)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ISO/IEC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 전기 표준 회의(IEC)에서 제정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에 대한 국제 표준이다. 이 표준은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조직, 자산 분류, 위험 분

석, 보안 대책, 감사 등 관리체계를 정의한다.

또한 ‘ISO/IEC 27017’과 ‘ISO/IEC 27018’은 각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요구사항과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한 국제 표준이다. 먼저 ‘ISO/IEC 27017’는 인증 및 권한 부여, 데이터 보호, 네트워크 보안, 재해 복구, 감사 및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정의한다. ‘ISO/IEC 27018’은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주권, 보안 모니터링, 보안 업데이트 등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채윤정 기자

## 위메이드플레이 ‘상하이 애니팡’ 8년간 하트 사용 54억개 돌파

위메이드플레이는 모바일 퍼즐 게임 ‘상하이 애니팡’이 서비스 8주년을 맞이하며 누적 하트 사용 수 54억 개를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9월 출시된 ‘상하이 애니팡’은 지난 5일 기준, 게임 내 정규 퍼즐 스테이지 플레이를 위해 사용된 하트의 누적 사용 개수가 54억 3000만 개를 기록했다. 연간 평균 6억 7800여만 개, 월간 평균 5650여만 개의 사용 개수가 집계됐다. /최빛나 기자

# WINE PICK S

## CHEONGDAM

### 청담점



## 와인픽스 청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와인픽스, 와인, 맥주, 위스키, 기타주류, 글라스, 칵테일 시럽, 치즈&사케테리까지, 주류와 관련된 3,000여종의 상품을 청담 플래그십 점포에서 만나보세요!

주소 | 강남구 청담동 1-1 퍼스트 빌딩 1층  
영업시간 | 월~일, 11:00~21:00

## ☑ OPEN EVENT

Grand Open : 9/1(금)

Grand Open Promotion : 9/1(금)~30(토)

오픈 행사 상품은 멤버십 가입 고객에 한하여 9/1(금)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 당일 가입 가능)



와인픽스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winepick\_s

# 中 철강 감산에 강세장 기대감... 현대제철 등 주가 '훈풍'

현대제철, 지난달부터 6.4% 올라  
국내 철강가격 상방압력 작용 분석  
중국 철강 수요부진에 대한 우려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중국발 철강 감산에 따른 가격 강세로 '철강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철강업황의 개선 여지가 확대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훈풍을 맞이할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다만 중국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철강주들의 주가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철강 감산으로 철강 가격 강세장이 시작될 경우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대제철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6.4% (종가 기준)가 올랐다. 더불어 고려아연도 1.3% 소폭 상승했다.

이규익 SK증권 연구원은 현대제철에 대해 "올해 남은 기간 중국 감산이 예년보다 강하게 이뤄지고 철강 성수기 효과로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 가장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철강 업체"라며 철강 대형주 중 최선호주(Top Pick)로 제시했다. 중소형주에서는 동국제강을 꼽았다.

철강업은 지난 5월 이후 중국의 철강 생산 증가로 인해 부진한 시기를 겪었다. 2차전지주로 분류됐던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현대제철, 고려아연,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의 주가는 훈조를 반복한 모습이다. 하지만 올해는 중국이 지난해보다 철강 감산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철강 가격의 강세가 점쳐지고 있다.

이 연구원은 "7월 말 대형 철강 업체에 감산 명령이 내려진 이후 감소성 등 철강 주요 생산지에도 감산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며 "9월부터 강도 높은 감산과 수요 성수기 시작되면서 철강 가격 강세를 전망한다"고 예상했다. 중국 철강 가격 상승이 국내 철강 가격에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중국의 조강생산량은 6억2900톤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조강 생산량이 작년 대비 감소하려면 남은 기간 일평균 조강생산량이 241만톤 이하여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일평균 조강생산량을 기록하게 된다. 또한, 9월부터 철강재가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성수기 수요 증가와 겹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중국 철강 수요에서 부동산이 약 36%의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흐름의 개선도 중요

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중국 부동산 경기는 2021년 하반기부터 부진이 시작됐고 당초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2015년과 같은 적극적인 구제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최근 비구이위안 사태까지 겹치면서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고, 같은 맥락으로 중국 철강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도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조강생산량은 전년동월 대비 7월에 11% 증가했고, 8월에도 한자리수 후반 증가 가능성이 높아 증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작년처럼 12월에 크게 감산해 연간 생산량은 작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감산에 따른 수혜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2010년대에도 중국 정부가 국내 총생산(GDP)을 방어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조강생산량을 증가시킨 바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한국토지신탁, 재건축·재개발 '신흥강자'

전문성·노하우 등 단계별 관여

한국토지신탁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신흥강자로 부상,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올 들어 한국토지신탁이 신규 수주한 사업장은 목동 10단지 재건축, 여의도 삼익재건축, 삼전동 모아타운, 흑석 11구역, 창신 10·11구역, 중랑구 중화우성타운 등이다. 9월 현재 수도권 19개 사업장, 2만 여가구의 사업시행자 및 대행자로 지정고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정도다. 이는 신탁방식 도시정비라는 새로운 정비기법을 제시, 도시정비조합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얻은 게 주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례로 '마곡신안빌라재건축(400가

구)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받는 등 오랫동안 난항을 겪었다. 조합은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신탁방식으로 사업방향을 선회했다. 한국토지신탁이 참여,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조율 등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토지신탁은 동서서 정구 개시 2주 만에 법정 동의율을 확보, 한 달여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획득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정비 사업장들이 한국토지신탁에 사업을 맡기는 이유는 사업추진 경험과 전문성 때문이다. 특히 신탁방식이라는 전문성, 노하우 등을 살려 각 단계별 사업에 관여하고 시공사 선정에도 참여함으로써 건설사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 현대엔지니어링,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

'힐스테이트 센텀 더 퍼스트'

외관 디자인 우수디자인으로 선정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중인 '힐스테이트 센텀 더 퍼스트'의 외관 디자인이 '2023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지난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선정된 상품에는 정부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굿디자인(GD)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3 굿디자인 어워드 환경 디자인 부문에 힐스테이트 센텀 더 퍼스트의 외관 디자인인 '스파클링 오브 라이트(Sparkling of Light)'를 출품, 워너(Winner)상을 수상했다.

스파클링 오브 라이트는 '빛의 반짝임'을 뜻하며, 부산 센텀시티의 화려한 야경과 수영강 수면에 반사돼 부서지는



'힐스테이트 센텀 더 퍼스트' 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

빛이 힐스테이트 센텀 더 퍼스트의 외벽에 비치는 모습을 표현한 명칭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외벽에 수영강 수변과 조화로운 색채의 자재를 사용하고, 불규칙적인 웨이브 패턴을 넣어 강이 흐르는 생동감을 극대화했다"면서 "정문 앞 문주에 강의 흐름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 자산운용사, 실적 개선에도 절반이 '적자'

자산운용사들 순이익 3849억원  
전체 순이익 전분기 대비 7.7%↓  
"모니터링 등 지속 수행 예정"

자산운용사들의 전체 실적은 개선됐지만 절반은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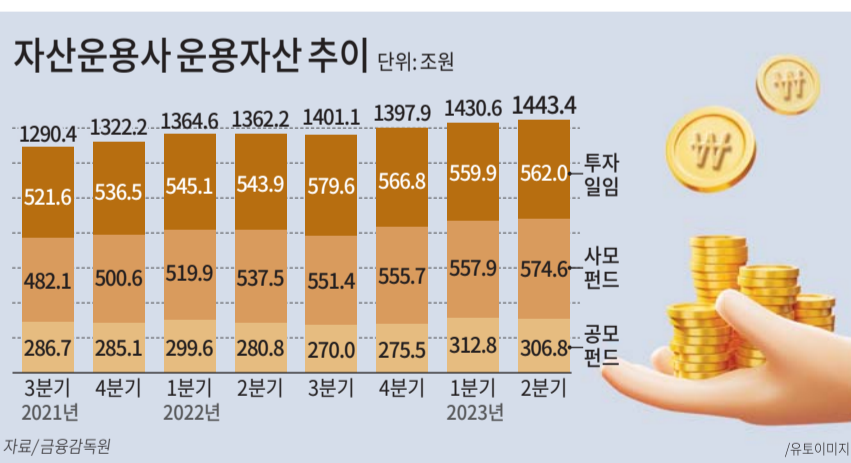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 전체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38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7% 늘었다. 전분기 대비로는 7.7% 감소했다.

영업수익은 1조238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4% 증가했다. 수수료수익 증가분이 1313억원으로 증권투자이익 감소분 705억원을 웃돌았다. 영업비용은 8241억원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증가로 전분기 대비 2.8% 늘었다.

회사별로는 455개 운용사 가운데 절반 가량인 227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회사 비율은 49.9%로 전분기 대비 9.7%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374개 일반사모운용사의 경우 163개사만 흑자를 냈고, 나머지 211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회사 비율은 56.4%로 전분기 대비 11.4%p나 높아졌다.

부분별로는 수수료수익이 1조22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4.7% 증가했다. 펀드수수료 8387억원, 일임자문수수료 183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14.2%, 17.3% 늘었다.

2분기 중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9%로 전분기 대비 0.7%p 하락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5.2%p 상승했다.

6월 말 기준 펀드사탁고는 881조 4000억원이다.

공모펀드가 306조8000억원 규모로 3월 말보다 6조원 감소했다. 머니마켓펀드(MMF)에서 15조9000억원이 감소한 반면 채권형과 주식형은 각각 4조 9000억원, 3조 7000억원 증가했다.

사모펀드는 574조6000억원으로 3월 말 대비 16조 7000억원 증가했다. MM

F(+5조 7000억원)과 부동산(+4조 3000억원), 특별자산(+4조 2000억원) 위주로 늘었다.

투자일임계약고는 562조원으로 채권형이 395조 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형과 혼합채권이 각각 92조 8000억원, 42조 20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운용사들의 운용자산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수수료수익도 증가하는 등 일부 수익성 지표는 비교적 안정됐지만 적자회사 비율이 높아지는 등 자산운용산업의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엔 이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오는 18일부터 4주간 시행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4주간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또 택배현장에 임시추가인력 7100명을 투입, 원활한 배송 및 종사자 과로방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주간을 추석 연휴택배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추석부터 물량 급증에 사전대응하고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평시(7월 평균) 대비 물량이 약 17%(하루 1500만→1750만박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관리기간 중에는 원활한 배송을 위해 택배현장에 간선차량 기사, 상·하차 인력,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7100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에 총 6일간(9월 28일~10월 3일) 휴식을 보장하고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 “제조혁신 노하우 전파... AI·그린 전환 등 中企 대응 노력”

중기중앙회-중기부-삼성전자 CEO에 스마트공장 사례 등 소개 총 300여명 참석 제조현장 투어 “스마트 공장에 기대·우려 공존 현장 체험으로 혁신 가능성 확인”



삼성전자가 광주캠퍼스에서 마련한 스마트공장 벤치마킹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0여 명이 삼성전자 광주캠퍼스에서 제조혁신 노하우를 배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부, 삼성전자와 함께 올해 스마트공장 선정 기업 CEO 등 300여명을 삼성전자 광주캠퍼스에 초청해 제조현장을 벤치마킹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행사를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삼성의 혁신 사례를 중소기업 대표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제조현장 투어, 스마트공장 우수기업 사례발표, 삼성전자의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가이드 강연' 등으로 진행했다.

지난 1989년 문을 연 삼성전자 광주캠퍼스는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프리미엄 생활가전을 생산하고 있다.

2019년 벤치마킹 행사 이후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CEO들을 위해 공장을 다시 공개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우수기업 사례발표에서는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베어링 설계-제조업종 특이인 다품종소량생산의 한계를 극복한 '더보링크' ▲제철소 쇠물 뽑는 장비 제작 공정방식을 자동화해 연간 생산량이 180% 향상된 '베수비우스' ▲스마트공장을 통해 3세대 용접면을 개발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오토스윙'의 사례가 공유됐다.

삼성전자 광주캠퍼스 제조현장 투어에서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냉장고, 에어컨, 금형, 인쇄회로기판조립, 콤프레셔 제품라인을 둘러보며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시스템 운영, 자동화 설비, 물류 최적화 등 혁신 노하우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중앙회 양진희 혁신성장본부장은 “삼성과의 스마트공장 사업은 중기부, 중기중앙회, 삼성이 ‘원팀’으로 협업하는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중소기업의 만족도와 성과가 높다”며 “올해부터 3년간 새롭게 사업이 시작되

는 만큼 AI·그린전환 등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중기부, 삼성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민형배(광주 광산구) 더불어민주당의원,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안광현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등도 참석했다.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중소기

업회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 구축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제조현장에서 삼성의 노하우를 직접 체험해보니 혁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원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은 “삼성은 ‘지능형 공장’으로의 생산현장 고도화, ESG 지원, 지자체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생태계가 보다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기부, 삼성과 함께 2018년부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1차 지원사업’을 통해 약 2000여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2차 지원사업’에선 중기부와 삼성이 3년간 매년 200억원을 투입해 연간 200여개 스마트공장의 구축·고도화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소벤처기업, 韓 중심에 서게 지원 총력”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기자 상견례 “선택·집중 통해 기업성장 여건 조성”

이달 1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장으로 취임한 강석진 신임 이사장(사진)이 현장 소통, 유관기관 협력, 조직혁신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석진 신임 중진공 이사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입기자들과 상견례를 갖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 중 하나인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일반적으로 어려운 기업을 돕는 것도 있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기업이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기업 현장 니즈 중심의 지원체계 재설계’를 포함한 4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장’과 관련해 강 이사장은 “이사장 선임 결정 통보를 받고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



‘심리적 장벽’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말하면서 “말로만 ‘현장’이 아니라 중진공 임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의 중요성도 밝혔다.

강 이사장은 “기업들은 10을 원하는 데 중진공이 그 절반만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원효과는 거의 없어진다. 하지만 기보, 신보 등 여러 유관기관,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부와 함께 힘을 모으면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원하는 것 역시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중기부 산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서 한때 이사 겸 전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자산 규모가 5조5000억원 정도인 중진공의 부채가 높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선 “24조원 규모의 보증을 깔고 있

다보니 부채비율이 높은 것이다. 중진공은 자산의 20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만큼 중소기업 지원을 많이 하라는 의미다. 한편으론 부채가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보증·융자로) 지원을 많이 한 결과이기도 하다. 부채비율 수준에 대해선 제대로 평가해 봐야 한다. 융자를 더 해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채권발행을 더 하는 것이 맞다. 또 기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부채비율은 당연히 낮춰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취임 직후 ‘조직혁신전담팀’도 새로 꾸렸다.

그는 “중진공이 과거에도 잘해온 부분이 있지만 취임후 이야기한 것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조직단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진단팀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활동하고 12월께 조직을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라며 “초격차 산업이나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이를 위해 조직의 어떤 부분을 강화해 나갈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이노비즈協-기보, 中企 추가 지원 맞춘

혁신기업 수출확대 등 공동추진

이노비즈협회와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혁신형 성장 지원을 위해 추가로 나선다. 이노비즈협회와 기보는 7일 경기 판교에 있는 이노비즈협회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두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이 기술사업화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기술평가등급 모형 활용 ▲협회 추천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IP평가보증, 투자연계 사업화 지원 ▲협회 추천 해외기술 도입 기업의 사업화 지원 및 협회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수출확대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지난 20년간 기보의 든든한 지원 하에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토양이 마련될 수 있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공급망은 물론이고 기술개발에 합치는 기업혁신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 이노비즈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김중호 기보 이사장(왼쪽),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 공영홈쇼핑, 정부 비축수산물 판매 진행

영광굴비·마른오징어 등 방송 공영홈쇼핑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리 수산물 판로지원에 나선다.

7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8일 TV홈쇼핑에선 정부 비축수산물 판매 방송을 진행한다.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와 함께 추석 전 물가안정을 위해 기획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수협 영광굴비’ (오전 9시 20분)와 ‘울릉도 마른 오징어’ (오후 11시 50분)다. 굴비는 마리당 80g 이상의 특장대 상품으로 총 40미를 5만9900원에 판매한다. 울릉도 마른 오징어는 6마리 구성으로 1팩(210g) 당 3마리씩 포장해 4만3900원에 선보인다.

모두 국내산으로 정부비축 수산물인 만큼 시중보다 싸고, ‘동행축제 상생적

립급’ 이벤트에 참여해 미리신청 및 모바일 앱 구매 시 10% 적립금도 받을 수 있다. 정부 비축수산물 판매 방송은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27일까지 진행되는 중소기업부 주관 ‘황금녘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영라방’도 선보인다.

8일 오후 5시 대구광역시의 유명 전통시장인 ‘칠성진 경명시장’ 현지에서 펼쳐지는 공영라방에선 생생한 전통시장 모습과 함께 다양한 우리 수산물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CJ대한통운, 빅데이터 활용 ‘업무 혁신’

‘박스리빌딩’ 적용 박스 크기 19% ↓

CJ대한통운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박스 크기를 찾아내고 접착식 라벨을 없애는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이며 친환경 효과와 물류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나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빅데이터 기반의 ‘박스리빌딩’ 기술을 자사 풀필먼트센터에 적용해 배송박스 크기가 평균 19%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또 접착식 라벨 대신 박스에 직접 바코드를 표기하는 ‘먹물분사형 바코드’를 통해 코팅라벨 사용량도 4년간 6400만장을 절감했다. 이를 나열한 총면적은 44만8000㎡로 축구장(7140㎡) 63개에 달하는 크기다.

CJ대한통운이 자체 개발한 패키징 기술 ‘박스리빌딩’은 상품별 체적 데이터와 주문정보를 조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크기의 박스를 찾아내 물류 현장에 투입하는 시스템이다.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방지해 친환경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지난해 경기 군포센터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후 곤지암·용인 등 5개 센터로 확대했다.

배송박스 크기가 줄어들어 따라 골판지 사용량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 빈 공간에 넣는 완충재나 포장테이프 등의 부가재 사용량도 줄어들었다.

운송차량에도 더 많은 박스를 실을 수 있어 1회당 배송가능한 물량도 늘어나면서 탄소배출량도 감소한다.

/김승호 기자

# 직원에 입맞춤·술 따르기 강요 등 협동조합 내 763건 비위 의혹 발각

고용부, 직장 성희롱·임금체불  
비정규직·성차별·연장근로 등  
법 위반 의혹 짙은 사례 일부 공개

국내 협동조합 내 일부 임직원들의 성희롱 및 임금체불 등 비위 의혹 다수가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협동조합(농협·수협·축협·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5건과 임금체불 214건을 적발했다. 또 비정규직·성차별 7건과 연장근로한도 위반 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 의혹이 짙은 사례들을 확인하고 일부를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모 축협지점 조합장 A씨는 매주 월요일 직원들에게 울동 동영상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도록 강요했다. A씨는 영상에 나오는 직원들을 외모와 복장에 대한 지적

을 일삼았다.

A씨는 또 “(나한테) 잘 보이면 보너스 접수를 주겠다”며 특정 직원에게 워크숍에서 장기자랑 및 공연을 하도록 강요했다. 일부 직원은 직장 내 뮤지컬 공연을 위해 3개월간 학원수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계약기간이 남은 기간제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했고, 이를 거부하자 CCTV 위치를 바꿔가면서까지 이 직원을 감시했다.

모 신협지점 임원 B씨의 경우, 회식 도중 술을 깨기 위해 벤치에 앉아 있던 여직원에게 접근해 강제로 입맞춤한 사실이 드러났다.

모 축협지점 C씨는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여직원을 데리고 가 술 따르는 행위 등을 강요했다. 이후 해당 여직원이 이 같은 부당지시 중단을 요구하자 C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타 지점 발령을 냈다.

비정규직·성 차별(5건)과 관련해 고용부는 기간제근로자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수당 및 업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여성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임금체불(214건)의 경우, 직원 3955명(해당 지점 합계) 대상 총 38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기준보다 과소 지급하거나, 수당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 등이다. 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과소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연장근로법정한다 위반(33건)의 경우, 266명(해당 지점 합계)이 1056회에 걸쳐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데 따라 올해 협동조합 전면 조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들.

/현대중공업

## 미래선박 패러다임 전환에 국표원, 국제표준 주도 나서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 창립식  
앞서 조선해양플랜트용 비계설치 등  
국제표준 2종 제안해 회원국 관심받아

정부가 친환경, 스마트 선박 등 미래선박 시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국제표준 주도를 위해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 창립식을 8일 부산 파크하얏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중소조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의 감축을 위한 규정과 선박 운항 시 안전보장을 위한 자율운항 선박 규정을 개발하는 추세다. IMO 규정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국제표준(ISO)을 인용한다. 앞서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80차 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50% 감축에서, 100% 감축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러한 미래선박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표준화 대응이 필수다. 이에 국표원은 포럼 창립을 통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 미래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 표준 수요 발굴과 보급·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국표원은 조선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의 일환으로 앞서 6~7월까지 이틀간 부산에서 중국·일본 등 13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선박용 의장 및 갑판 기계기분과위원회 총회를 개최, 작업자 안전과 직결되는 ‘조선해양플랜트용 비계설치 및 제작기준’ 등 국제표준 2종을 제안해 회원국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비계는 조선 및 해양분야 공사현장에서 지면 내지 임시 받침대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 비계의 지지력 한계를 넘어 설치돼 붕괴되는 사고가 조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8~2017년) 중대재해 총 253건 중 떨어짐 사고 가운데 작업발판 및 비계 발생 사고가 가장 많다.

조선해양플랜트용 비계설치 및 제작기준은 방제시험연구원(FILK)이 국표원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개발을 추진 중이며, 국제표준 개발을 통해 재해 발생건수를 축소하는 한편, 비계 제작업체인 조광/제강 업체의 신시장 창출 등 산업계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변화하고 있는 조선·해양 관련 국제규정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고부가 미래선박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고부가 미래선박 국제표준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공정위, 은행 불공정약관 조항 129개 시정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  
고객에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 중지  
전산장애 시 소비자에 손해 전가 등

은행이 인터넷 장애나 전산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129개 조항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1391개를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20개 유형 129개 조항(은행 113개, 저축은행 16개)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목한 주요 불공정 약관을 보면,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고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당시에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고,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또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도 시정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됐다.

개별통지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수단이 부적절한 약관 조항도 적발됐다. 한 은행의 주택담보 노후연금대출용 대출거래약정서를 보면, 대출이자율은 대출약정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대출 실행일에 변동되는 경우 실제 적용할 대출이자율을 대출거래장에 표시하고 개별통지는 생략한다고 돼 있다.

또 모 은행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에는, 약관 변경 시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모바일 앱,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무협-포스텍, ‘인공지능 최고경영자 과정’ 개설

다양한 산업 분야 속 AI 혁신 과제와  
성과 창출 사례 통한 경영 전략 제시

한국무역협회(KITA)는 포스텍과 ‘포스텍-KITA 인공지능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날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입학식에는 무협 무역아카데미 박연우 사무총장,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 서영주 원장, 교육생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과정은 ▲AI 기술에 대한 이해(AI-CORE) ▲AI 기술과 산업 분야의 융합(AI+X)을 주제로 13주간 진행된다. 제조·물류·IoT·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속 AI 혁신 과제와 성과 창



지난 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포스텍-KITA 인공지능 최고경영자 과정’ 입학식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무협

출 사례를 통한 경영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스텍 서영주 인공지능연구원장, 안희갑 인공지능대학원 교수,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AL2XL 연구소장, 유

정원 아마존웹서비스 대표, 유현경 마이크로소프트 마케팅&오퍼레이션 부문장 등 학계 권위자와 산업분야 전문가가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 환경부, OECD와 대기오염 저감대책 모색

탄소중립 등 기후목표 기여 수치 제시

환경부가 오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한 공동 연구협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예정된 이 행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저감정책이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등 기후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객관적 수치(모의 계산·모델링)로 제시된다.

참석기구·기관은 △OECD 환경경제통합국을 비롯해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ASA) △한국환경연구원(KEI) △인천대학교 등이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대기질 및 대기오염 개선을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대기오염 정량화 연구 진전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아시아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주요 난제와 필요한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2부 주제는 탄소중립 전환이다. 우리 측은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고, OECD 환경경제통합국 등 해외 기관은 탄소중립 정책이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3부에서는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대기질정책의 통합평가를 주제로 OECD 환경경제통합국이 정부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대기오염정책영향에 대한 중간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강철기 | 200F (181x259)cm | Oil on canvas | 2022



# 스네이크비전

호랑나비 Gallery 초대전

강철기 작가 초대전

**tomorrow**  
2023. 9. 6(wed)\_9. 19(tue)

호랑나비 갤러리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 문의 02.6743.3370  
갤러리 오픈 월~금요일(오전 10시~오후 6시) / 토, 일요일(오전 11시~오후 7시)  
/ 전시 마지막 날 12:00 마감

주최 호랑나비 Gallery 후원 ARAMBI 동성제약주식회사

# 3년 내 폐플라스틱 10% 줄이고 재활용률 80%로 높인다

서울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  
커피전문점서 '개인컵 추가할인제'  
배달앱 '제로식당' 서비스 전역 확대  
한강공원, 일회용 배달용기 금지 등

서울시는 7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10% 줄이고 재활용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플라스틱 자원화·순환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시는 2026년까지 일일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478t(현재 2753t)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기존 69%에서 79%로 높인다는 목표다.

먼저 시는 9~11월 서울시내 커피전문점 100여곳에서 텀블러에 음료를 주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문하면 300원을 할인해주는 '개인 컵 추가 할인제'를 시범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참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상품권(15% 할인)을 발행한다.

배달의 민족·요기요·뽕겨요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대화용 그릇에 담아주

는 '제로식당' 서비스는 종전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세제와 음식 등을 대화용기에 담아서 주는 방식으로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는 '제로마켓'도 1000개로 늘린다.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으로 운영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내년 독섬·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제로 플라스틱존이 확대된다.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한다. 단독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들 현재 1만3000곳에서 2026년까지 2만개로 확충하고 버스정류장, 대학가 등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에 분리배출함, 스마트 회수기 등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시는 땅에 묻히거나 소각돼 버려던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되살리는 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폐비닐을 연료유나 재생원료로 생산해내는 '도시원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국내 4개 정유화학사(GS칼텍스·HD현

대오일뱅크·LG화학·SK지오센트릭)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연간 8만6000t의 폐비닐을 열분해 원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봉제원단 폐기물'도 고품연료, 섬유원사 등으로 자원화한다. 시는 "하루 폐기되는 자투리 원단만 127t이고, 이 중 60%가 소각·매립된다"며 "2026년까지 자치구·SR센터·기업을 연계해 하루 100t가량의 원단을 섬유패널, 건축자재 등 재활용 자원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신기술을 도입해 현대화·자동화한다. 시는 내년 중 하루 최대 230t의 폐기물을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은평·강남·강동 선별시설 처리용량을 늘리고, 2026년까지 인공지능(AI) 선별 로봇을 모든 공공 시설에 확대 도입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현 고1 전문대 입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필수 반영

전문대교협 '전문대학입학전형' 확정  
전형방법 제한·특별전형 명칭 표준화  
모집유보제 유지·정원의 전담학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전문대학 입시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전형에서도 필수로 반영된다.

이외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그 전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해 진행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이 입학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모집유보제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등을 정원으로 모집하는 '정원의 전담학과' 운영이 2025학년도 입시에 이어 2026학년도에도 적용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

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는 지난달 31일 전문대학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우선, 학생 선발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필수로 반영된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전문대학도 학생 선발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

형에서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입학 전형방법 간소화 및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은 학생 선발 시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서류 등 핵심 전형요소 5개 중에서 전형요소 간 반영 비율을 결합해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방법 수를 제한한다.

정원내 특별전형은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 자격 등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일반고 ▲특성학교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고른 기회 ▲특기자 ▲추천자 ▲대학자체 등 7가지 용어로 전형명칭을 표준화해 전형유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5학년도 처음 도입되는 '모집유보제'도 2026학년도 유지된다. 학령인

구 감소에 따라 대학이 정원을 영구 감축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정원을 줄였다가 필요할 때 감축분을 다시 모집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학은 정원의 최대 20%까지 모집을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된 정원은 3년간 유지해야 한다.

'정원의 전담학과'도 운영된다. 전문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등을 정원으로 모집해 별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로 2026학년도 입시에서도 적용된다.

전문대학 입시는 수시모집 2차례, 정시모집은 1차례 운영된다. 2026학년도 1차 수시모집 기간은 2025년 9월8일~9월30일까지, 2차는 2025년 11월7일~11월21일까지다. 정시는 2025년 12월29일부터 2026년 1월14일까지 모집한다.

/이현진 기자 ihj@



탄자니아 연수팀 등이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파주시를 방문했다.

##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벤치마킹 위해 탄자니아 연수팀 등 방문

파주시는 탄자니아 '성 주류화 및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역량강화' 연수팀 15명과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6일 파주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성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해 코이카가 추진하는 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탄자니아 연수팀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과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기획 및 실행 등에 관심을 가지고 파주시를 방문해 벤치마킹했다.

이날 시를 방문한 연수단은 '여성의 참여, 일과 돌봄이 공존하는 안전한 파주'라는 비전 아래 추진되고 있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에 대해 권문영 여성정책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파주시가족센터,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기관을 방문했다.

아울러 연수단은 파주시 방문 이전부터 요구해 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정책 실행을 위한 협업과 시민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개최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성매매 집결지 시민지원단 2차 위촉식을 참여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방문한 주디스 엠마누엘 수연수단 대표는 "파주시가 경기도 성인지 정책 최우수 기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공모 1위에 선정된 곳이라고 들었다"라며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시민들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 수행 과정 등을 볼 수 있었으며, 이를 접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성신여대 日 교류대학 재학생과 '실시간 동시 수강' 운영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가 9월 시작된 2학기부터 일본 교류대학 재학생과 성신여대생이 '실시간 동시 수강'하는 공동 교과목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성신여대는 올해 일본 학습원여자대학(총장 오모모 도시유키)과 교류협정 체결 20주년을 맞아 양교에 '한일교제 탐구연습'이라는 공동 교과목을 개설하고, 양교 재학생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수강하는 정규 수업 운영에 들어갔다.

양교 재학생은 이번 공동 교과목 강의를 온라인으로 '동시 수강'하며 정치, 사회, 문화 등 15주간의 주별 주제와 관련된 뉴스 텍스트를 해석하고 토론을 펼친다.

/이현진 기자

## 폐교된 '한국국제대학교' 재적생 63% 편입학 완료

전형 응시생 359명 중 347명  
인근 대학 16곳으로 특별편입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달 말 폐교된 진주 한국국제대학교에서 편입학 전형에 응시한 학생 359명 중 347명이 인근 대학 16곳으로 편입학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국제대 재적생은 546명으로 약 63%가 편입학 한 셈이다.

한국국제대는 1977년 학교법인 일선학원이 진주여자실업전문학교로 개교해 여러 번의 개편을 거쳐 2003년 4년제 대학으로 승격했지만, 2018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이후 극심한 재정난을 겪다가 결국 지난달 31일 폐교됐다.

이번 특별편입학은 한국국제대가 폐교되면서 당장 2학기부터 공부할 곳이 없어진 재적생들이 공백 없이 학습을



한국국제대 대학본부.

/한국국제대 홈페이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추진됐다.

1차 특별편입학에 참여한 일반대는 경남 가야대·경남대·경상국립대·부산장신대·영산대·인제대·창신대·창원대, 부산 신라대, 경북 경주대·대구대·대구한인대 등 12곳이다. 전문대학은 경남 김해대·동원과학기술대·마산대·창원문성대 등 4곳이 참여했다. 일반대와 전문대학은 총 1268명의 학생을 모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합격 통지를 받고도 해당 대

학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등 1차 특별편입학 미완료자 12명과 당초 2024학년도 진학을 희망한 학생들에 대해 내년 1학기 2차 특별편입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편입학은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걸리지만, 인근대학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짧은 기간임에도 1차 편입학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했다"라며 "이들은 2학기에 편입학한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 가을바람 살랑... '제철 먹거리' 활용 신메뉴 출시 봇물

**할리스 문경 오미자 등 신메뉴 3종**  
보니밤 크림라떼·치즈케이크 선봬

**CJ푸드빌 사과·밤 활용 신메뉴**  
수줍은 사과·애플 블랙티 등 출시

**JW메리어트 '올 어바웃 머쉬룸'**  
6종 버섯볶음 '퐁기 샐러드' 준비



'보니밤 크림 라떼', '보니밤 치즈 케이크' / 할리스

전통 먹거리에 대한 인기와 안심이 고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고객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산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는 프리미엄 먹거리 출시가 확대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카페 업체들은 밤과 사과를 활용한 디저트로 고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는다. 먼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할리스는 보니밤, 문경 오미자와 같은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가을 신메뉴 3종을 선보였다. 국내산 밤을 속절없게 잘 쪄낸 보니밤으로 독특한 식감과 단맛을 살린 '보니밤 크림 라떼'와 '보니밤 치즈 케이크'가 대표적이다. 가을을 대표하는 밤으로 계절감을 담았을 뿐 아니라, 정성과 시간을 들여 만드는 보니밤을 활용해 맛과 신뢰도를 모두 높였다.

할리스의 '보니밤 크림 라떼'는 스페셜티 원두를 블렌딩한 블랙아리아에 연유와 보니밤 크림을 얹어 커피 풍미,

달콤함, 고소함이 잘 어우러진다. 달콤한 보니밤 크림과 뛰어난 향미의 블랙아리아가 만나 부드럽고 진한 가을의 맛을 선사한다. '보니밤 치즈 케이크'는 시트에 보니밤을 넣어 은은한 밤 맛을 느낄 수 있다. 마스카포네 생크림, 밀크 가나슈를 올려 달달하면서도 부드러운 뿐 아니라 밤크림으로 알프스 최고봉인 몽블랑 산을 연상시키는 비주얼로 보는 재미까지 더했다.

할리스가 준비한 또 다른 가을의 맛은 '문경 오미자 사과 스무디'다. 당도 높은 국내산 사과와 문경 오미자가 맛의 조화를 이루는 과일 스무디로, 청정 자연에서 자라 국내 최고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문경 오미자가 새콤달콤한 맛을

자아낸다. 가을 제철인 과일이 만나 최상의 단맛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황금빛 사과와 붉은 오미자가 빛어내는 오묘한 색감이 단풍을 떠올리게 한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푸레쥬르도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인 사과와 밤을 가득 담아낸 베이커리 4종 및 음료 1종을 선보였다.

달콤한 사과잼과 나타드코코를 더해 식감을 살린 케이크 '수줍은 사과'와 원물감을 그대로 살린 '사과 만난 크림 치즈 브레드'가 대표적이다. 달콤한 사과 베이스에 은은한 홍차 향의 잉글리시 블랙퍼스트를 가미한 과일티 음료 '애플 블랙티'도 만날 수 있다.

밤을 활용한 제품 2종도 선보인다. '밤을 담은 밤말 크림빵'은 달콤한 통팥과 통밤을 담은 쫄깃한 빵 속에 은은한 밤 크림을 듬뿍 넣은 제품으로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3000원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도 연다.

호텔업계도 완연한 가을을 맞아 제철인 식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식음료 메뉴를 선보인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포만감이 높고 낮은 열량을 자랑하는 가을 식재료 '버섯'을 미시적으로 선별하는 프로모션 '올 어바웃 머쉬룸'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모든 버섯의

맛과 영양소를 풍부히 전하는 '퐁기 샐러드'를 준비해 참송이, 새송이, 백만송이, 모델 등 6여 종의 버섯볶음과 싱그러운 레몬 바질 드레싱을 조화롭게 선보인다.

또 표고버섯과 만가닥 등 다섯여 종의 버섯을 치즈와 베이컨 그리고 토마토소스와 조합해 갈조네 모양얼담아 튀겨낸 '머쉬룸 포켓 피자'와 먹물 치아바타에 스테이크와 참송이와 새송이 등의 구운 버섯을 담은 '머쉬룸 블랙 잉크 파니니'도 만나볼 수 있다. 가을 대표 요리는 11월 15일까지 가을 기간에 한해 판매한다.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은 지역의 제철 특산물을 적극 이용해 한국의 맛을 담은 가을 디저트를 선보였다. 먹골 황실 배에 바닐라 무스를 더한 '먹골 황실 배 디저트', 우도의 땅콩을 넣어 크런치한 식감이 돋보이는 '우도 땅콩 케이크'를 비롯해 총 4종으로 구성됐다. 전통 음식을 보존하는 프로젝트인 '맛의 방주'에 등재된 식자재를 주재료로 채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페 프랜차이즈와 호텔 업계가 발빠르게 가을 신메뉴로 소비자의 입맛 공략에 나섰다"며 "식음의 계절인만큼 건강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도쿄 시부야 스카프 스퀘어 팝업스토어 전경. /아모레퍼시픽

## 아모레퍼시픽 '헤라' 日 대형쇼핑몰에 '팝업'

글로벌 럭셔리 메이크업 브랜드 헤라가 일본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헤라가 8월 31일부터 일본 도쿄 시부야의 대형쇼핑몰 '스카프 블스퀘어'에서 브랜드 팝업 스토어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브랜드 대표 제품을 직접 써보고, 헤라 소속 아티스트들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메이크업 서비스와 메이크업 쇼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경험할 수 있다.

팝업 오픈에 이어 9월 1일에는 일본 최대 규모 뷰티 정보 플랫폼이자 멀티 브랜드숍인 '아토코스메' 도쿄, 오사카점에 공식 입점했다. 일본 시장에서 블랙쿠션, 센슈얼 누드밤, 센슈얼 누드 글로스 등 브랜드 대표 제품을 선보이는 중이다. /신원선 기자

# 대웅제약 '나보타', 미국서 편두통 치료 특허 획득

부작용 줄여... 18년간 독점적 권리  
삼화성·만성 편두통 임상 2상 '순조'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보툴리눔 독신 제제 '나보타'의 특허를 획득하며 글로벌 보툴리눔 독신 치료 시장 진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독신 제제 '나보타'의 편두통 치료 특허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나보타'는 기존 보툴리눔 독신 제제에 비해 투여 횟수를 줄이고 투여 위치도 변경해 사용 편의성을 높여 부작용을 줄인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편두



/대웅제약

통 치료 특허로 인해 대웅제약은 미국에서 2041년까지 독점적 권리를 보호 받게 됐다.

무엇보다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화성(간헐적) 편두통과 만성 편두통 치료를 위한 임상 2상도 순조롭게 이어질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9년 이온바이오파마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나보타'

의 글로벌 치료 시장 진입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미국 소재 바이오의약품 기업인 이온바이오파마는 보툴리눔 독신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한다.

향후 대웅제약은 편두통 외에 ▲경부 근긴장 이상 ▲위 마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치료 적응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온바이오파마에 따르면 경부 근긴장이상 적응증은 올해 중 2상을 종료하고 2024년에는 3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위마비 적응증은 임상 2상 신청계획서를 제출했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적응증은 전임상 단계에 있다. /이청하 수습기자 mlee236@

## KGC인삼공사, 과천에 R&D센터 오픈

3821㎡ 규모 총 9개층 사용

KGC인삼공사가 경기도 과천에 R&D센터를 열고 연구 개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연구 역량을 고도화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해 치열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연구 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KGC인삼공사 R&D센터는 과천 지식산업센터 내 위치했다. 3821㎡ 규모로 9개층을 사용하는 R&D센터는 기존 대비 1.7배 정도 공간을 확장하고, 첨단 장비도 신규로 도입하며 차별화된 R&D 기반 시설을 구축했다.

전세계 최고의 인삼 및 홍삼 제품 분

석기관인 KGC인삼공사 R&D센터는 2010년 KOLAS인정 획득,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인삼 진세노사이드 성분 분석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센터에서는 원료와 소재의 다변화 연구를 위해 홍삼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현지 원료에 대한 연구분석 및 제품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지구온난화로 인삼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스마트팜 시설 안정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국제백신연구소와 함께 홍삼 진세노사이드의 면역력에 대한 공동연구도 강화한다. /신원선 기자

## 하이트진로 '명품 증류주' 선물세트 출시

일품진로 오크43 등 3종

하이트진로는 9월부터 명품 프리미엄 증류주 선물세트 3종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프리미엄 증류주 소주 3종 '일품진로'(알코올 도수 25%), '일품진로 오크43'(43도) 및 '진로 1924 헤리티지'(30도·사진)를 각각 특별한 술잔과 함께 선물세트로 담는다.

먼저 하이트진로 99년 증류주 노하우의 정수인 일품진로 선물세트는 375ml 3병과 온더락잔 2개로 구성했다. 일품진로는 증류 초기와 말기의 원액은 과감히 버리고 향과 풍미가 가장 뛰어난 중간 원액만 사용, 영하의 온도에서



특징이다.

로열프리미엄 증류주 '일품진로 오크43' 선물세트는 375ml 2병과 온더락잔, 스트레이트잔 각 2개씩 1세트로 담았다. '일품진로 오크 43'은 하이트진로가 엄격한 관리하에 오래 보관해온 '12년 목통 원액'과 일품진로를 블렌딩한 제품이다. /신원선 기자

## 신세계인터내셔널

### 사카이·칼하트웍과 협업

신세계인터내셔널이 7일 패션브랜드 '사카이(Sacai)'와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칼하트웍(Carhartt WIP)'의 협업 컬렉션을 사카이 청담전문점에서 선출시한다. 정식 출시는 오는 10일이며 신세계백화점 사카이 전 매장을 통해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칼하트웍의 스트리트 감성과 사카이 특유의 믹스매치를 활용해 트렌디한 워크웨어를 완성했다. 칼하트웍은 미국 오리지널 워크웨어로 유명한 칼하트를 스트리트 감성으로 재해석해 선보이고 있는 패션 브랜드다. /김서현 기자 seoh@

# SK, 일자리 해법·大-中企 상생방안 찾는다

오는 14일 '2023 울산포럼' 개최 청년 지역사회 정착 등 방안 논의 ESG공급망 규제 대응 등도 모색

SK그룹이 지역사회의 청년 일자리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SK그룹은 오는 14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ESG, 함께 만드는 울산의 미래'를 주제로 '2023 울산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울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지역포럼이다. 울산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하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울산광역시, 울산시의회,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이 후원한다.

포럼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오연철 울산대 총장 등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등 SK 구성원도 참여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가운데)이 작년 9월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2 울산포럼' 폐회식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올해 울산포럼 세부주제는 '청년행복, 산업수도의 변화'와 '동반성장, ESG 넥스트 전략'이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공급망으로 확산되는 ESG 규제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다.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고자 울산포럼에서는 제조업 재도약을 위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또 주요 수출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ESG 공급망 규제

에 대응하고, 동반성장을 하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포럼이라는 특성에 맞게 지역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자 본 포럼에 앞서 지난 3개월간 울산시 내에서 사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기업 리더, 실무진, 청년 등 3개 그룹별 세미나와 인터뷰를 통해 포럼 주요 의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모았다.

울산포럼은 SK그룹의 첫 지역포럼으로, SK그룹 지식경영 플랫폼 '이천포럼'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회사의 모태인 울산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써 SK그룹과 함께 울산포럼을 준비했다.

SK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울산 지역 구성원과 함께 청년, 성장, ESG 등 지역이 고민하는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청년을 포함한 지역 전 구성원의 행복 증진과 대·중소기업 협력 방안에 대한 이번 논의가 지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삼성전자서비스 'CS패널' 4기 출범

삼성전자서비스는 7일 '임직원 가족 CS패널' 4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CS패널은 삼성전자 서비스와 업계 관심 및 이해가 높은 임직원 가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다. /삼성전자서비스



## SKB '에코 라이프스타일 페어' 참가

SK브로드밴드가 경상남도 창원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3 에코 라이프스타일 페어'에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직원이 SK ESG 미래관에서 Cloud X를 설명 중이다. /SK브로드밴드



이준호 안전&사업부사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이진행 경기본부장(왼쪽 다섯번째)이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 한전, 전기안전대상 '대통령상'

혁신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공로

한국전력은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2023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 예방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기관 1곳을 선정해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행사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한전 경기본부가 혁신적인 안전 관리체계 구축,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3년 전기안전대상 수상 이

후 10년 만에 상을 받았다.

한전은 지난해 1월부터 대국민 안전 사고 근절을 위해 현장 중심의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전사 직원이 합심해 '직접활선 퇴출', '선(先)안전 후(後)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한전 경기본부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백건의 전기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안전 전담조직 신설 및 안전수칙 제정, 간접활선 신자재·신공법 개발 등 지속가능한 안전 관리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효성 '줍깅' 참여... 친환경 실천 챌린지

환경보호·재활용 중요성 알리

효성그룹 임직원이 '자원 순환의 날'에 동참했다.

효성은 6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노플라스틱 한강! 모두모아 페스티벌'에 참가했다고 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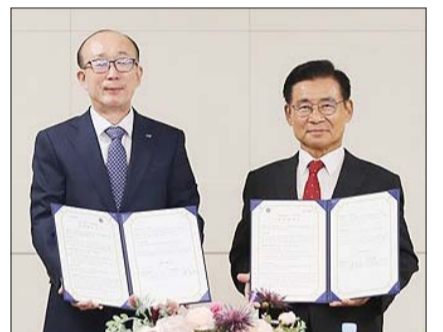
이 페스티벌은 9월 6일 지구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자원 순환의 날을 맞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미래한강본부가 함께 마련한 자리다.

효성은 임직원 45명이 참가해 서울 시민들과 함께 친환경 실천 챌린지를 진행했다. 줍깅에 참여하고 환경 퀴즈를 풀며 수거한 쓰레기를 분리했다.

/김재용 기자 juk@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무심코 지나칠 때는 한강공원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지 몰랐는데, 직접 줍깅 활동을 통해 쓰레기를 모아보니 생각보다 많았다"며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보람차다"는 소감을 남겼다.

한편 효성그룹은 매년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효성첨단소재(주)는 반려해빈인 인천 영종도 용유해변에서 정기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효성첨단소재와 효성화학 임직원이 각각 마포대교 복단과 한강 반포지구에서 줍깅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 LIG넥스원-중원대, 국방산업 인재육성

LIG넥스원이 중원대학교와 국방산업기술분야 인재 육성에 나선다.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이사(왼쪽)와 황윤원 중원대학교 총장이 6일 MOU 체결 뒤 중원대 본관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LIG넥스원



## 펠어비스-한국전통문화대, 업무협약

펠어비스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와 '문화유산 가치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펠어비스

## LG전자 '프리즈 서울' 헤드라인 파트너 참가

올레드 TV로故 김환기 작가 작품 선배

LG전자가 세계적인 아트페어에 핵심 역할을 맡았다. LG전자는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프리즈 서울 2023'에 공식 헤드라인 파트너로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프리즈는 스위트 아트바젤과 함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행사다. 이번 서울 행사에서도 전세계 300여개 갤러리가 참가한다. LG전자는 2021년부터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해왔으며, 이번에는 최고 권위 헤드라인 파트너로 참가를 결정했다. 프리즈 헤드라인 파트너는 LG전자가 처음이다.

LG전자는 올레드 TV로 고(故) 김환기 작가 작품을 선보인다. 대표작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를 비롯한 원화 12점과 함께 그의 작품을 새롭게 표현한 미디어아트 5점도 소개된다.

서울대 박제성 교수, 안마노 작가,



LG올레드 TV로 재현한故 김환기 작가 작품들.

김대환 작가, 미디어아트 그룹 버스데이(VERSEDAY) 등 국내 디지털 아티스트들도 참여했다. 김환기 작가 작품을 초대형 LG 올레드 TV를 캔버스로 디지털로 새로 구현했다.

박제성 교수는 "스스로 빛을 내는 올레드 TV를 통해 원작의 물감 색을 빛의 색으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대환 작가도 "블랙을 제대로 표현하는 올레드 TV로 원작의 완벽한 색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었다"라며 LG 올레드 TV의 화질을 높이 평가했다. /김재용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8일 (금)  
음력 : 7월 24일

수도권 날씨  
20~3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16/30, 동두천 17/30, 가평 16/31, 파주 17/30, 서울 20/31, 양평 17/30, 인천 21/28, 수원 20/30, 용인 20/30, 백령도 21/26, 평택 17/3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인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수석부총장 박현석 △교무부총장 정상원 △입학부총장 구국모 △총무부총장 김준호 △총무부총장보 오지희 △학생처장 최정환 △장학처장 권지혜 △국제교류실장 한승미
  -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 △권익침해방지과장 김경희 △권익보호과장 이정연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이정애 ◇과장급 승진 △혁신행정담당관 임종필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신동진 △기획재정담당관실 신내은 △가족정책과 이경운
  -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재난관리정책국장 김용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최명규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2023년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행사명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일시 : 2023년 9월19일(화) 14~17시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제 :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 장소 :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  
◎ 등록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포럼 참석 선착순 100명에게 블루투스 무선이어폰을 증정합니다.

# 산업은행 이전에 대하여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이사는 누구나 힘든 일이다. 하물며 직장이 낯선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삶 자체가 달라진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에서 기본구상이 나왔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쉽지 않았던 이유다. 그럼에도 지난 2019년까지 16년에 걸쳐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153개의 지방 이전이 마무리됐다. 지역 균형발전이란 명분이 통했기 때문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12개, 세종시에 19개, 지방도시에 22개 기관이 옮겨갔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산업은행(국책은행)의 부산 이전을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산은 노동조합과 한국재무학회는 지난 7월 말 '부산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표하며 이전 반대 논리를 폈다.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업무별 수익감소와 직원 퇴사 등으로 기관 손실이 10년간 7조원이나 발생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또 국가경제에 미치는 재무적 손실이 15조4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산은이 관리하는 구조조정

기업들의 부도 위험 증가에 따른 부가손실로 22조원을 추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수치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최근 언론에는 이전을 추진 중인 산은에서 20~30대 직원의 이탈이 심각하다는 기사가 나왔다.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68명의 직원이 퇴직했는데 20~30대가 전체의 78%에 달한다는 것이 요지다. 산은의 직원 평균보수가 1억원을 훌쩍 넘는 데도 이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다는 것.

산은 사측은 자체 컨설팅을 통해 전 기능·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지역 거점별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센터를 도입하면 국가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한다고 강조한다. 또 동남권 및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한다. 사측은 서울에도 수도권 금융시장과 기업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기능을 병행 배치하는 방식으로 본점을 이전하더라도 수도권 내 정책금융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전을 반대하는 노조와 이전 강행을 추진하는 사측 모두 논리가 있다. 하지만

인력 유출로 손실이 발생한다거나 이전으로 기업 구조조정 손실이 발생한다는 노조 쪽 추정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지방으로 이전한 153개 공공기관을 떠올려 보자. 그 기관의 인재가 유출돼 본연의 업무에 문제가 발생했을까. 또 산은 본점이 부산으로 간다고 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지 못할까. 이는 LH가 진주로 이전해서 주택공급 정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 전주로 이사가서 기금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약과 같다.

특히 산은의 본점 이전이 예정돼 있어 인력 유출이 심하다는 논리는 공색하다. 기사에 붙은 댓글이 따끔하다. '부산 아니라 산골로 들어가도 다니겠다는 사람 미어터진다. 근무 조건이 좋으니까 스펙 좋은 사람이 많은 조직이지 스펙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야 하는 조직은 아니다'.

산은 부산 이전 핵심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서 둔다'고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이다. 지금처럼 여소야대 정국이 재현된다면 산은의 부산 이전은 물건너 갈 수도 있다.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산은 직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를 기원해야 하는 이유다.

/bluesky3@metroseoul.co.kr

## 후분양 아파트 이득일까?



**기지 수첩**  
김 대 환  
(건설부동산부)

최근 부실시공 및 하자 관련 분쟁이 이어지면서 후분양 단지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후분양은 건설 공사가 전체 공정의 60~80% 이상 진행된 이후 분양 절차에 돌입하는 방식이다. 골조가 세워진 이후에 분양이 이뤄지는 만큼 부실시공이나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선분양보다 낮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수요자들의 후분양 선호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강동구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된 '둔촌현대수린나'는 1순위 평균 36.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기 평택시 일원에 후분양 단지

청약을 받은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는 1순위 평균 82.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계약에서도 100% 완판됐다.

현재 국내 아파트 분양 시장은 선분양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선분양은 수분양자들에게 받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어 사업구조의 안정성이 확보돼 건설사가 선호하는 주택 공급 방법이다. 수요자 입장에서선 미리 주택을 구매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한 효과를 얻는다.

반면, 후분양의 경우 미리 계약금, 중도금을 받지 않아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발생하는 사업비를 시공사가 소화해야 한다. 건설사가 직접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분양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계약 이후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년 남짓이어서 분양대금

을 마련해야 하는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부담이 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후분양제가 부실공사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후분양이 활성화될 시 중견 이하 건설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주택 공급 물량 감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가격 폭등이 일어날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건설사의 후분양 선택이 분양가를 더 받기 위한 것일 뿐 부실시공 및 하자와는 큰 상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 입장에서 후분양을 선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이 필요 없어 고분양가 심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원자재값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후분양 단지가 수분양자들에게 이득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kdh@

오늘의 운세 9월 8일 (음 7월 2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종일 밥을 사면 만사가 편하다. **48년생** 사업이든 직장이든 성실하면 좋은 결과. **60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 **72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84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본 마음이다.



**37년생**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얻는 날. **49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해야 한다. **61년생** 한발 물러서는 것도 앞으로 나가는 방법. **73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85년생** 폭풍우가 치니 잠시만 쉬도록.



**38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은 없는지 생각. **50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말조심. **62년생**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난다. **74년생** 부드럽게 하루를 보내자. **86년생** 목 먹는감 썰러나 보니 자랑하지 말도록.



**39년생** 물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니 힘껏 노를 저어라. **51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하자. **63년생** 힘든 길이라도 가다 보면 결과가 좋다. **75년생** 고대하던 것일수록 잘 살펴라. **87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안 된다.



**40년생** 전인사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해 마무리. **52년생** 좋은 일은 많으니 조금은 베풀자. **64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76년생**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88년생** 미운사람 딱 하나 더 주는 마음으로 양보.



**41년생** 생각지 못한 일로 심신이 고갈된 하루. **53년생** 운이 활짝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65년생** 과대포장보다 검소. **77년생** 원하던 일이 손조름게 풀리고 재물도 들어온다. **89년생** 미구라지 한 마리가 용담이를 흐려 놓는다.



**42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 **54년생** 회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다 피싱 걸릴라. **66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나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는다. **78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음주조심. **90년생** 현실이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면 만족스럽다.



**43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55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바를 달성. **67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속이 상한다. **79년생** 베풀 능력이 있을 때 최대한 베풀어라. **91년생** 삼각관계는 불필요이니 행동자제.



**44년생** 배우자가 내게 가장 큰 조력자임을 잊지 말자. **56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황이 시작된다. **68년생**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 **80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보람이 있다. **92년생**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을 열심히.



**45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아량을 베풀자. **57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야 실수가 없다. **69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81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다. **93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46년생** 일의 시작은 신용에서 비롯되니 약속을 소중히. **58년생** 여한 속 물고기처럼 좁은 공간을 방방 도는 하루. **70년생** 종일 행운의 날. **82년생** 바늘 가는 데 실 가니 부모님을 공경. **94년생** 믿는 도끼에 목을 찍히니 연인 자랑 말라.



**47년생** 알아도 모른 척 상대의 실수를 덮어라. **59년생** 격한 말은 모두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71년생**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니 나도 말조심. **83년생** 머리만 민고 있다면 일을 그르친다. **95년생** 부창부승(夫唱婦隨)이니 다투지 마라.

## 김상회의四季

### 가격이 싼 이유



기회부동산이 성행하던 때가 있었다. 험값인 땅을 몇 배나 수익이 생길 것처럼 수십 명에게 쪼개서 팔았다. 건축은 불가능하고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 속아서 산 사람은 이만저만 마음고생이 아니다. 지방 두메산골의 땅이 아니라도 용도도 없고 가격이 오르지도 않아 결국 어렵게 모아서 투자한 돈만 묶여버리고 만다. 최근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돈이 묶여버린 몇 사람과 상담을 했다. 대부분 부동산 지식도 없이 투자한 사람들인데 시골 땅지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땅지는 간단히 말하면 진입하는 도로가 없는 땅이다.

공용도로와 아예 접하지 않거나 땅 주변이 모두 다른 사람 땅이어서 진입할 방법이 없는 땅을 말한다. 차철 되팔 수도 없고 돈만 묶일 수 있다. 땅지를 전이나 답처럼 지목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부동산의 가치는 어느 도로를 접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초보 투자자들이 땅지를 사는 이유는 철저하게 현장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알선하는 사람의 말만 듣다가 실수를 한다. 특히 지방의 땅을 사려면 반드시 현장을 가보는 게 좋다. 지적도는 당연히 확인해야 하고 지적도를 볼 줄 모르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실수하지 않는다.

땅지에 건축이 안 되는 것은 건축법을 보면 알 수 있다.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동차가 필요한 건축물이면 주차장법에 따라서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땅지에 건물을 짓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나 무척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땅지는 대부분 가격이 싸게 나오는데 가격에 혹하면 안 된다. 가격이 싼 물건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서 모르거나 큰 욕심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26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37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을 늘려라**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7		9	6
		3	9		5	2
	7		6			
	1				7	5
	5		8		9	
2	7					3
			5		3	
6	5		9	1		
8	4		2			7

	8	5					9
6				3	4	5	
9			6	5		3	
		8		5		2	6
			2	4			
	6	4		8		9	
	5		1	6			7
	9	6	5				1
7						5	4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사물라이스도쿠** **생각을 늘려라**  
문제출제: 손호성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트레이닝 사물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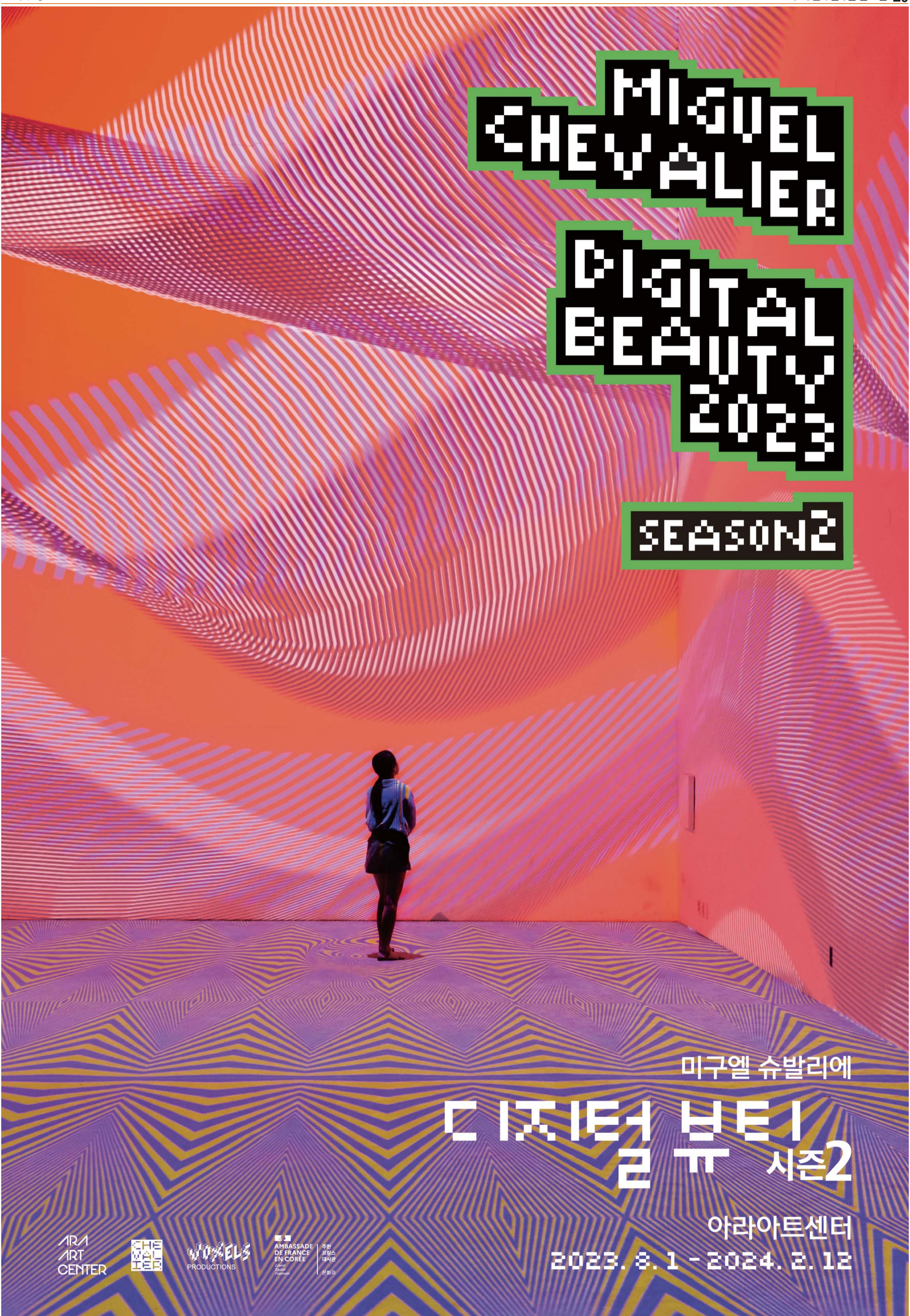
2	1	9	9	8	7	6	7	8
7	8	2	1	2	6	8	9	9
6	9	8	8	9	7	1	2	2
8	8	9	9	6	1	7	2	2
1	2	6	7	8	2	9	9	8
9	2	7	8	2	9	8	1	6
8	7	1	2	9	8	2	6	9
2	9	2	6	1	8	9	8	7
9	6	8	2	7	9	2	8	1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iguel  
CHEVALIER

DIGITAL  
BEAUTY  
2023

SEASON 2



미구엘 슈발리에

디지털 뷰티  
리뷰 시즌 2

아라아트센터

2023. 8. 1 - 2024. 2. 12

ARA  
ART  
CENTER



VOXELS  
PRODUCTIONS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각

# 세상의 모든 화이트와인... 프랑스 알자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전 세계에서 이토록 다양한 화이트와인을 선보일 수 있는 산지를 나는 알지 못한다.” 프랑스의 알자스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실바너는 신선함이 가득하다. 피노블랑은 소박 단순하다. 게뷔르츠트라미너는 풍부함이 넘치지만 산미도 섬세하다. 알자스 대표주자 리슬링은 신선함과 풍부함을 고루 만족시켜준다. 뤼스카와 게뷔르츠트라미너는 잔에 따라자마자 화사한 향이 코를 사로잡는다. 화이트와인을 경험할 단 하나의 산지를 꼽으라면 알자스일 수밖에 없다.

알자스 와인생산자협회 피에리 프리츠(사진)는 지난 6일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3 알자스 와인 마스터 클래스’에서 “토양의 다양성으로 보면 알자스는 세상 와인산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지질 유형이 다 있는 전시장과 같다”며 “최적의 기후와 토양, 여기에 식문



① 알자스 와인생산자협회 피에리 프리츠가 지난 6일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3 알자스 와인 마스터 클래스’에서 알자스 지역의 다양한 토양과 와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② 목이 좁고 기다란 플루토병은 알자스 와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전용병이다. /소텍사 코리아



화까지 더해져 가장 뛰어난 화이트와인 산지가 됐다”고 말했다. 피에리는 알자스를 대표하는 양조학자이기도 하다.

알자스는 와인 산지로 따지면 규모가 정말 작은 곳이다. 만약 전세계 와인 생산량을 와인 한 병이라고 하면 알자스 와인은 몇 방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모든 상황과 입맛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함이다.

알자스 와인의 90%는 화이트다. 포도원은 길이가 120km인 반면 너비는 2~15km에 불과하다. 폭이 좁고 길게 뻗어진 알자스에서도 포도원은 산자락에 매달린 모양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반대류성 기후다. 9월 수확 시기에는 따뜻한 낮과 시원한 밤이 포도알을 보호해준다. 훌륭한 화이트 와인 양조에 이상적이다. 지금이 딱 수확이 시작될 시기다. 조짐이 좋다.

그는 “연중 내내 기후가 까다롭다가 수확을 앞두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2023년은 훌륭한 빈티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바뀐 소비 트렌드도 알자스 와인의 전망을 밝게 한다.

피에리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레

드 와인이 지배적이었던 이전과 달리 화이트 와인의 수요가 늘었다”며 “알콜 도수 15~16도의 진한 레드 와인보다는 과실미나 향긋함을 가진 가벼운 화이트나 스파클링 와인을 찾는다”고 전했다.

와인이라고 어렵게 생각하거나 까다롭게 따질 필요가 없다. 원할 때면 편하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마실 수도 있어야 한다.

바이오다이내믹 와인에 대한 관심도 알자스 와인에 긍정적이다. 알자스는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유기농 농법을 시작했다. 알자스 와인의 35%가 유기농으로 생산된다. 바이오다이내믹 인증을 받은 와이너리 수로 보면 독일 전체나 이탈리아 전체보다 알자스 한 지역에서가 더 많다.

그는 “마케팅 기회주의 차원의 유기농이 아니라 환경 보호는 물론 포도밭 일하는 사람과 소비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지속가능한 와인 생산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3, 14, 15대째 이어진 와이너리가 가능했던 것도 그래서다.

이와 함께 알자스 와인은 무조건 지역 내에서 병입한다. 전체 공정에 대한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의미다. /smahn1@metroseoul.co.kr

## 주말은 책과 함께

### ‘행위 중독’에서 벗어날 방법

현대인들은 모두 ‘행위 중독’이라는 만성 질병을 앓고 있다. 과거에는 담배, 알코올,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마약 정도가 중독될 만한 대상이었다면, 오늘날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메일, 온라인 쇼핑 등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유혹의 빛이 도처에 깔려 있다.

행위 중독의 A to Z를 다룬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문서가 아닌 호러 논픽션 같다. 가장 무서운 점은 책에 나온 이야기가 소설이 아닌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다.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이 화면 너머에서 사용자의 자제력을 허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마치 마약상이 더 많은 마약을 팔기 위해 약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의 팔에 강제로 헤로인 주사바늘을 꽂는 것처럼 보인다.

책은 사람들이 행위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게임 디자이너들은 캐릭터가 특정한 박스 위로 이동할 때 반짝이는 빛을 표출하거나 아이템을 획득하면 신 나는 효과를 내보내는 등의 자잘한 피드백으로 게이머들이 게임에 푹하게 만든다. 불이 들어오게 하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주르륵 훑는 아이처럼 게이머들도 자신의 행위가 어떤 효과를 낳는다고 느끼면 동기 부여가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조심자의 행운’을 맞본 게이머들도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사람들이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에 몰두하는 이유는 게임에 내장된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정교한 보상 사이클 때문이다. 게임사는 초반엔 유저에게 신속하게 보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애덤 알터 지음/홍지수 옮김/부키

상을 제공하고 이후엔 보상을 주는 시간을 늘려 사람들이 온종일 게임을 하게 만든다. 초보 게이머들이 얻는 ‘윈’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자잘한 미결 상태에서 오는 희열은 충동구매를 부추긴다. 2007년 문을 연 온라인 쇼핑 사이트 길트는 깜짝 세일을 하는 방식으로 순식간에 600만명의 회원을 끌어모은다. 예고 없이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회원들은 끊임없이 화면을 새로고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미세한 미결 상태를 겪는다. 이제 사람들은 사이트에 새로운 상품의 할인 판매를 알리는 ‘딩동’하는 소리가 울릴 때마다 만사를 제쳐 두고 앱에 접속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책은 우리가 왜 행위 중독에 빠지는지,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420쪽. 2만2000원. /김현정 기자 hjk1@

###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른다

메데아 벤자민, 니컬러스 J.S. 데이비스 지음/이준태 옮김/오월의봄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서방 진영은 러시아와 푸틴을 악마화하며 비난했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책은 당신이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푸틴은 악이고 우크라이나는 선이며 젤렌스키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영웅일까. 나토와 미국의 도발로 러시아

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 공격했다는 것은 푸틴의 핑계에 불과할까. 전쟁 승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게 옳은 일일까.

저자는 전쟁을 선악의 구도로 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균형 잡힌 관점에서 중전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책. 252쪽. 1만8000원.



### 괴심한 철학 번역

코디징 지음/이소노미야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은 완독한 사람보다 읽다가 중간에 포기한 이들이 더 많은 악명높은 철학서다. 지식을 구하기 위해 철학서를 편 독자들은 자신의 문해력을 한탄하며 이마를 친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저자는 한국 사람들이 철학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철학 용어가 일본어 한자를 음역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한국

철학 용어의 대부분이 일본어 한자와 같다. 책은 우리나라 철학 용어의 상당수가 우리말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일본어에 중독된 퍼즐 놀이를 멈추라고 일갈한다. 저자는 일본식 번역이 서양 철학의 정수를 담아낼 만큼의 그릇이 되지 못함을 수치로 보여주며 독자들이 평범한 한국어로 순수이성비판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232쪽. 1만8000원.



### 평범한 규칙

정도영 지음/우물잇는집

사람들은 법이 공명정대하다고 여길 때 법을 지킨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 사회의 법을 공정하다고 느낄까. 법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악마들로 인해 법의 가치가 의심받고 있다. 개개인의 옳고 그름이 서로 대립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이해관계가 다층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공존을 위해 선택한

타협의 결과물이 법이라면, 그건 누굴 위한 타협인 것일까. 저자는 다수 대중의 행복이라는 법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회적 규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칙을 위한 규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소수가 아닌 다수의 편에서는 규칙을 통해 구시대 체제에서 탈피하고자 저자는 제안한다. 208쪽. 1만8000원.



##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그리스 ‘폭염산불’ 이후 하루 만에 750mm ‘물폭탄’  
▲‘비행기 추락 생환기’ 담긴 헤밍웨이 편지... ‘3억’에 팔려 /사진 뉴시스

▲‘시가짜뉴스’ 우려에 구글 “선거 광고에 AI 사용 공개 의무화”  
▲美합정, 대만 동쪽 타이베이시에서 14년만에 입항 “중견제”



▲英 제2의 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 1460억원 재정 적자 /사진 뉴시스  
▲美 “우크라이나 열화우라늄탄 제공” 발표... 10억 달러 지원패키지



# 조화로운 바람·폭포의 물줄기 숲속에서 뛰어노는 듯한 공간



## 아파트의 미학(美學)

###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1호선 의정부역서 도보 15분 거리  
주변에 초·중학교·중량천 등 위치  
최고 35층, 9개동, 926가구 규모  
동간거리 최대... 1104대 주차공간  
터치 스크린 월패드로 첨단 시스템



최근 찾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센트럴'.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7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5분 정도 걸렸다.

단지 인근에는 경의초등학교, 발곡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중량천, 장암 발곡 근린공원 등이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중앙생활권3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선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총 926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은 ▲49㎡ ▲59㎡ ▲72㎡ ▲84㎡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금색의 '푸르지오' 로고가 부각돼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지는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뽐내고 있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조망과 채광, 통풍을 고려해 대부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동간거리를 최대한 넓힌 공간설계로 주거쾌적성도 확보했다.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없앤 공원형 아파트로 단지를 조성한 것도 눈에 띄었다. 주차 공간은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총 1104대(가구당 1.19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단지에는 첨단 시스템이 적용됐다. 10인치 터치 스크린 월패드를 통해 조명·난방·가스 제어, 세대 현관 방문객 확인 및 문열림, 세대 간 화상통화, 엘리베이터 호출, 원격점점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실시간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도어 카메라, 스마트 일괄제어스위치 등도 적용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단지에는 불필요한 전력을

차단해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대기전력 차단 장치와 공용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LED디밍 시스템이 적용됐다"면서 "각 세대별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가 설치돼 원하는 시간에 난방 및 온수 사용 가능한 개별난방 시스템도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단지에는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센트럴'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2단지 중앙에는 석가산과 분수가 설치됐다. 바람과 폭포의 물줄기, 소나무 등이 조화를 이루는 한 폭의 산수화와 같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마치 자연 속 한가운데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바로 옆에는 휴게 공간이 조성돼 있었다.

단지 내 곳곳에는 깔끔한 느낌의 조경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2단지에는 소나무와 플랜터(화초를 심기 위하여 멋스럽게 잘 만든 화분이나 용기)로 만들어진 휴식 공간이 자리 잡고 있었다. 1단지에는 바닥분수가 설치돼 있어 입주민들에게 휴식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했다.

단지에는 가족과 이웃, 자연과 단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푸르지오의 주민편의시설 '그리너리 라운지'(Greenery Lounge)가 조성돼 있었다.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 클럽을 비롯해 GX룸, 도서관, 독서실, 카페,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시설이 있었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에는 앵무새가 생각하는 '재잘재잘 수다쟁이 앵무'와 숲속을 연상시키는 '늘푸른 나무' 등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었다. 해적선을 모티브로 물놀이 놀이터도 설치돼 있어 어린이에 대한 배려도 엿보였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① 단지 내 석가산 ② 단지 내 휴식 공간 ③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센트럴' 입구 ④ 단지 내 조경 ⑤ 단지 내 테마놀이터 '재잘재잘 수다쟁이 앵무' ⑥ 단지 내 테마놀이터 '늘푸른 나무'



카페·호텔업계 가을 제철 먹거리 신메뉴 출시 봇물  
L1



Life

SK  
일자리·동반성장  
상생방안 찾는다  
L2



“당당한 맛, 당당한 가격”

# 대형마트가 치킨맛집으로... ‘맛성비’ 이끈 당당치킨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홈플러스 ‘당당치킨’

식품계 돌풍 일으킨 6990원 ‘반값치킨’  
2개월 만에 30만 마리 판매 기록 세우

국내산 냉장 닭으로 튀겨, 당일조리·판매  
착한 가격에 식어도 맛있는 치킨으로 인기

새우치킨·햄버거 등 ‘당당 시리즈’ 강화  
대형마트 내 델리메뉴 상품 경쟁력 갖춰



지난해 7월 홈플러스가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선보인 6990원 ‘당당 후라이드 치킨’ /홈플러스

지난해 7월 점심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일상화되고 있을 때 혜성처럼 나타나 대형마트 즉석조리 식품계를 평정한 상품이 있었다. 바로 홈플러스의 ‘당당치킨’이다.

국내산 냉장 8호닭 1마리를 온전히 사용한 당당 후라이드 치킨의 가격은 6990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3%, 식품 생활물가지수는 8.8%까지 치솟은 때 등장한 당당치킨은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며 ‘반값치킨’ 붐을 일으켰다.

홈플러스가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선보인 당당 후라이드 치킨은 매일 점포별로 30~50마리만 한정 판매하면서 오픈런과 함께 호평이 이어졌다.

당당치킨은 출시 2개월 만에 30만 마리 판매 기록을 세우는 데 성공했다. 특히 합리적인 가격에 맛과 품질로 2030세대가 열광했다. 출시 후 1년간 2030세대의 후라이드류 매출 신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계속되는 고물가 현상에 2030세대가 한끼 식사 메뉴로 가성비 ‘당당 시리즈’를 선택한 것이 주효했다.

인기가 치솟으면서 홈플러스는 ‘당당’ 시리즈를 론칭해 후라이드 치킨에 이어 ‘당당 콘소메 치킨’, ‘당당 매콤새우 치킨’, ‘당당 허니 치킨’ 등 신메뉴를 선보였다. 지난 6월에는 ‘당당 순살치킨 트윈버거’를 출시하면서 외연을 햄버거까지 넓혔다. 계속해서 신메뉴를 선보이면서 누적 판매량은 1년간 400만 팩을 넘겼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당당 후라이드 치킨 이후 당당 시리즈가 델리(즉석조리 식품) 부문 매출 성장을 견인해 매출이 50% 신장하기에 이르렀다.

고객은 물론, 업계 평가도 좋다. 당당 치킨은 기존 대형마트 치킨의 한계를 깨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대형마트 치킨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용된 닭은 작는데 튀김옷은 크고, 판매 채널 특성상 구매 직후 바로 섭취하기보다는 식은 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당치킨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대형마트 치킨을 ‘저렴한 가격은 물론, 식은 후에도 맛있는 치킨’이란 인식을 고객들에게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

홈플러스는 저렴한 가격에도 좋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당당치킨에 당일조리, 당일판매 원칙을 세웠다. 매장 별로 다르지만, 통상 1 영업일 내 판매를 고려해 30~50마리 만을 판매하고 있다.

기존 프랜차이즈 치킨 대비 염지가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 또한 품질을 고려한 판단이다. 염지를 강하게 하면 조리 후 시간이 흐르는 사이 삼투압으로 육즙이 모두 빠져버리기 때문에 다소 약하게 했다. 마트 즉석식품인 만큼 조리 후 몇 시간여 이상 매대에 진열되거나 고객이 쇼핑 후 취식해 식을 것까지 고려했다.

시장 트렌드를 변화시킬 만큼 큰 돌풍을 일으키면서 기존 프랜차이즈 치킨 기업들과의 마찰도 잠시 빚었다. 당당치킨 출시 후 경쟁 대형마트사들도 잇따라 대형마트 즉석조리 치킨을 출시했다. 결과적으로 당당치킨이 대형마트 즉석조리 치킨의 가격과 품질을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대비 1/3~1/2 수준으로 주도한 셈이다.



홈플러스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델리(즉석조리 식품)를 강화한 홈플러스 리뉴얼 점포 메가푸드마켓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6월 ‘당당 순살치킨 트윈버거’를 출시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과 점주들은 대형마트 치킨에 대해 “골목상권 침탈”이라며 항의했다. 2010년 롯데마트가 출시한 5000원 치킨 ‘통큰치킨’ 사태가 소환됐다. 당시 통큰치킨은 프랜차이즈 치킨과는 전혀 다른 조리법과 품질이었음에도 가격만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 기업의 성토가 이어지며 단 7일만에 판매가 중단됐다.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다. 엔데믹 이후 치솟은 배달비와 당당치킨 출시 직전 있었던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제품 가격 인상을 두고 불만이 컸던 고객들이 홈플러스의 편에 섰다.

당당치킨은 홈플러스의 온라인 사업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올해 1~6월 월 2회 이상 구매자는 전년보다 16% 늘었다. 지난 2021~2022년 22% 증가한 데 이은 결과다. 상반기에도 온라인 전체 매출은 11%, 쿵커머스 1시간 즉시배송 매출은 55% 증가했다. 당당치킨은 홈플러스 온라인에서 높은 검색 키워드 순위를 꾸준히 유지하며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홈플러스는 당당치킨 이후 마트 내 즉석식품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당당 시리즈’는 한정 수량 판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큰 잠재 매출이 숨어있는 셈”이라며 “앞으로도 ‘당당 시리즈’를 비롯한 델리 메뉴를 더욱 강화해 상품 경쟁력을 갖추고 집객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유럽 진출 독려하는 클린스만 감독 “월드컵 성공 위해 많은 유럽파 필요”  
▲해트트릭 폭발 손흥민, EPL 파워랭킹 1위 /사진 뉴시스

▲ ‘일진 의혹’ 김이어라...뮤지컬 ‘프리다’ 축 “배우 하차 없다”  
▲김민재, 아시아 수비수 최초 발롱도르 30인 후보 선정



▲정국,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 헤드라이너...韓 솔로 처음  
▲남자탁구 ‘만리장성’ 중국에 저 평창 아시아선수권 동메달 /사진 뉴시스